

6월 Market Index			
코스피	8051.33	코스닥	847.07
	(-37.01)		(-21.34)
금리	3.776	환율	1532.30
	(+0.028)		(+6.70)

metro® 경제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전면 배치
고부가 영토 선점 전략
04



“가짜뉴스 꼼짝마!” AI 탐정 활동 개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AI 콘텐츠 관리 역량 주목



휴대폰 개통시 '안면인증' 필수

휴대전화 개통할 때 얼굴로 본인을 인증하는 제도가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신분증 위조·도용으로 로 대포폰 등 금융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6일부터 모든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에서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고객은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추가 본인확인을 해야한다. 6일 서울 중구 소재 LG유플러스 매장에서 직원이 안면인증 절차를 시연하고 있다. /뉴시스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 체계가 새로운 시험대에 오른다.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며 수익을 올리는 게시자를 겨냥한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플랫폼들의 자율 운영정책과 AI 기반 콘텐츠 관리 역량이 주목받게 된 것이다.

6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요 플랫폼 운영업체들은 자율 운영정책과 신고 체계를 마련하고 허위정보 여부를 자체 기준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다.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제도 시행을 계기로 AI 기반 콘텐츠 관리 기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대응책도 마련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정보 생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람이 모든 게시물을 직접 검토하는 방식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I가 위험 게시물을 우선 선별하고

운영 인력이 최종 판단하는 형태의 콘텐츠 관리 방식으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플랫폼에는 자율 운영 정책 마련과 신고 체계 구축, 투명성 보고서 공개 등의 관리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관련 시스템 정비에도 나서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플랫폼들은 이미 AI와 이용자

신고 시스템을 활용해 스팸과 불법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콘텐츠 등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자율 운영 책임이 강화되면서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도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들도 AI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구글은 유튜브를 중심으로 마신러닝 기반 콘텐츠 탐

지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메타 역시 AI 기반 위험 콘텐츠 탐지와 외부 사실확인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다. 생성형 AI 확산 이후에는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와 영상, 음성까지 분석하는 기술 경쟁도 빨라지는 추세다.

(2면에 계속)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社告

메트로경제 '2026 100세 플러스포럼' 시즌2
AI시대 성공적 노후 위한 자산전략

최근 우리 사회는 늘어나는 평균 수명과 삶의 질 향상으로 평생 자산관리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메트로신문은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100세 플러스 포럼'의 성공적인 출발을 토대로 더욱 업그레이드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를 오는 7월 9일(목요일) 개최합니다. 올해 포럼 주제는 '인공지능(AI)시대, 자산관리 전략 달라져야'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경제 및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AI 시대에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상속, 증여 전략, 부동산, 금융자산, 대체투자 및 미래투자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 행사명 : 2026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2)
- ◆ 주 제 : '인공지능(AI)시대, 자산관리 전략 달라져야'
- ◆ 일 시 : 7월 9일(목) 오후 2시~5시00분
(VIP 티타임 오후1시40분~2시)
- ◆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 문 의 :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metro

캐나다 잠수함 사업 승패 초읽기

韓 시간 오늘 새벽 발표 예상
해군운용 잠수함 12척 건조
국내방산 단일계약 최대수출

업이다. 한화오션은 검증된 KSS-III 계열 잠수함과 빠른 납기, 가격 경쟁력, 캐나다 현지 산업협력 안을 앞세워 수주전에 대응해 왔다. 한국 측은 조선·방산뿐 아니라 에너지, 수소산업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힌 패키지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차세대잠수함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 발표시기가 다가오면서 한화오션이 대형방산 수출 성과를 낼 수 있을 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업은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산돼 한국이 따낼 경우 단일 계약 기준 국내 방산 수출 최대 기록을 새로 쓸 수 있다. 다만 캐나다가 잠수함 성능과 가격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 관계, 산업협력 효과, 장기 운용 부담까지 함께 따지고 있어 경쟁사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가 선정되거나 분할 발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외신과 업계 등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일(현지시간) CPSP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시간으로는 7일 새벽 발표가 예상된다. 이번 발표는 최종 계약 체결이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는 절차로 이후 세부 조건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CPSP는 캐나다 해군이 운용할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사

한국 정부는 수주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한국의 수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50대50"이라고 답했다. 캐나다가 잠수함 자체 경쟁력과 산업협력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동맹 관계와 장기 운용 체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이에 반해 독일은 발표를 앞두고 수주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지난 3일 TKMS의 비스마르 조선소를 찾아 "독일 연방 정부 전체가 캐나다와의 방산 협력 성사를 위해 전방위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여러 측면에서 우리에게 매우 유리하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원관희 기자 wkh@



metro

‘광주 군공항’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청와대 내 전담기구 설치
3대 메가프로젝트 관리
“250만평 규모 부지 확보
평탄화로 공사기간 최소화”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광주 군공항 일대를 호남권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로 선정했다. 특히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매달 개최하고 청와대 내 전담기구도 설치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직접 관리할 방침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일정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청와대는 6일 정부가 야심 차게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일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3대 메

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기업 의견, 교통·물류 환경 등 제반 요건을 검토해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반도체 생산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백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전공정부터 후공정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종합 생산 기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강 실장은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가운데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광주 군공항 지역은 약 250만평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돼 있어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 도심과 KTX 역에 인접해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으며, 도로와 공항, 항만을 연계한 물류 접근성도 우수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부연했다. 강 실장은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부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들어갈 정

도로 규모가 충분하며,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공항의 조기 이전도 추진된다.

강 실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당초 계획된 팜(반도체 생산공장) 10기 투자가 훨씬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보상부터 전력·용수 공급까지 전반적인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며 "용인 일관산업단지 내내 가동을 시작하는 만큼 국가산단도 가동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며 정부에 기업 투자 애로사항 해소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주문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靑 “이병태 부위원장에 사퇴 권고...스스로 거취 판단하는 중”
▲한병도 ‘이만주 합성음란물 피해’에 “중앙당 차원 법적 대응”
/사진 뉴시스

▲국회 국방위, 野 불참 속 첫 전체회의...與 김병주 간사 선임
▲장윤기 차량 핵심 증거물 ‘케이블타이’ 인멸...경찰, 미압수 경위 수사

▲경찰 “반성한다” 구속 안 한 사이, 50대는 옛 연인 살해
▲“잘 보면 안 낡는다” 통념 깨졌다...고소득 女출산 긍정적

美·日 금리차에 엔화 약세 지속... 원화 하락압력 확산 우려

엔화, 40년만에 최저수준 이어가
엔 캐리 거래, 정책환경 등 영향
원화 가치 독자적 반등 쉽지 않아

엔화가 40년 만의 최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 기업의 임금 인상이 3년 연속 5%를 넘고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1%까지 올렸지만 미·일 금리차와 엔 캐리 거래, 추가 인상을 제약하는 정책 환경이 엔화 반등을 가로막으면서 원화에도 하락 압력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국제금융시장에 따르면 엔화는 이날 오전 달러당 161.57엔 안팎에서 거래됐다. 지난주 기록한 1986년 이후 최저치인 162.84엔에서는 소폭 반등했지만, 달러지수가 2주만의 낮은 수준으로 내려온 점을 고려하면 엔화의 회복력은 제한적이었다. 원·달러 환율도 24시간 현물환 거래 첫날인 이날 오전 1530원대에서 움직였다.

엔화 약세는 일본 경제의 임금·물가 정상화 흐름과 대조된다. 일본 최대 노동조합인 렌고가 집계한 올해 평균 임금 인상은 5.01%로 2024년 5.10%, 지난해 5.25%에 이어 3년 연속 5%를 웃돌았다.



지난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엔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시스

최근 실질임금이 플러스로 돌아선 데다 일본은행 단칸조사에서 대기업 제조업체감경기도 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은행도 지난달 16일 정책금리를 0.75%에서 1%로 올렸다. 31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기초적인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접근하고 있는 만큼 경제·물가와 금융 여건에 따라 추가 인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 추가 인상 속도에 의구심

1%라는 금리는 일본 국내에서는 높지만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여전히 낮

다. 미국 기준금리보다 2.5%포인트(p) 이상 낮아 엔화를 빌려 고금리 달러 자산 등에 투자하는 엔 캐리 거래의 유인이 남아 있다. 현재 금리 수준보다 일본은행이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미국과의 금리차를 좁힐 것인지가 엔화 방향을 좌우하는 셈이다.

일본은행은 추가 인상을 예고하면서도 금리를 올린 뒤에도 금융 여건이 완화적이라고 평가했다. 경기와 물가 흐름을 살펴 점진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신호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미국을 빠르게 추격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이어지고 있

다. 메이지야스다종합연구소는 임금 상승이 소비를 뒷받침하고 일본은행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 근거를 강화할 것으로 평가했다.

일본 정부의 정책 기조도 변수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면서 일본은행에 성장 중심 정책과 보조를 맞출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의 완화적 정책 선호와 일본은행 내 비둘기파 인사 확대가 향후 긴축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도 엔화 약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도 엔화의 방향을 돌려놓지 못했다. 일본 재무성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엔화 방어에 총 11조7349억엔을 투입했다. 개입 직후 엔화 가치가 반등했지만 금리차와 정책 기대가 달라지지 않자 다시 40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밀렸다.

◆ 원화, 24시간 거래도 첫 시험대

엔화의 부진은 원화의 독자적인 반등도 제약할 수 있다. 지난 1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 관련 부서는 원화와 엔화의 동조성이 양국의 저성장 국면과 미국과의 금리차, 대미 투자 기대, 높은 수출 경합도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분

석했다.

정부도 최근 원화 가치가 한국 경제의 기초여건과 상당히 괴리됐다고 평가하고 일본·미국 등 주요국과 외환시장 정보를 긴밀히 교환하고 있다. 엔화가 다시 급락하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원화까지 같은 아시아 수출국 통화로 묶어 매도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질 수 있어서다.

이날 오전 6시 원·달러 현물환 시장이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되면서 해외 시간대에 발생한 엔화 급락과 일본 당국의 개입도 원화 가격에 시차 없이 반영될 수 있게 됐다. 시장 접근성과 가격 발견 기능은 개선되지만 거래량이 적은 야간 대에는 엔화 급락과 같은 외부 충격이 원화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도 있다.

한은 관련 부서는 금융위 회의에서 원화와 엔화의 동조성이 "엔화 약세 시에는 강하게 나타나고 엔화 강세 시에는 약해지는 등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엔화가 40년 만의 약세권을 벗어나지 못할 경우 원화 역시 수출과 무역수지 등 국내 기초여건만으로 빠르게 반등하기는 쉽지 않음

전망이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삼성, 메타 AI칩 생산협력 검토... 파운드리 사업 분수령

계약규모 약 65억달러 수준 거론
2나노 공정 수율·안정적 양산 관건

메타가 삼성전자와 차세대 인공지능(AI) 칩 생산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계약 규모보다 2나노(나노미터·10억분의 1m)공정의 수율과 안정적인 양산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삼성 파운드리 실적 반등의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메타는 차세대 AI 가속기 'MTIA' 3세대 생산을 위해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협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규모는 약 65억달러(약 10조원) 수준이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공식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MTIA 1·2세대는 TSMC에서 생산됐지만, 3세대부터는 삼성전자 2나노 공정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력 가능성을 단순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 /삼성전자

대형 수주 이상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메타가 삼성전자의 첫 대형 AI ASIC(주문형 반도체) 고객이 될 경우 첨단 공정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대표 레퍼런스를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생산 이력과 고객 신뢰도가 신규 수주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향후 자체 AI 칩을 추진하는 빅테크 고객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가 메타와의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경쟁력으로는 '턴키' 역량이 꼽힌다. 업계에서는 시스템 LSI 사업부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고 파운드리에서 생산까지 수행하는 일괄 체계를 구축할 경우 고객의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공정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향후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패키징까지 연계될 경우 삼성전자의 수직계열화 경쟁력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의견도 따른다.

실제로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최근 AI 반도체 고객 저변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 칩 A16 생산을 맡은 데 이어 AI 반도체 기업 그록(Groq)의 AI 추론 칩 생산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메타뿐 아니라 엔트로픽의 자체 AI 칩과 구글 차세대 TPU 생산 협력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첨단 공정 고객 기반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결국 2나노 공정의 양산 경쟁력이 이번 협력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AI 가속기는 일반 모바일 칩보

다면적이 커 웨이퍼당 생산 가능한 칩 수가 적고 미세한 결함에도 영향을 받기 쉽다. 이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수율을 확보하지 못하면 제조원가가 높아지고 고객의 양산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내년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이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삼성전자가 미국 내 생산거점을 확보할 경우 현지 빅테크 고객 확보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최근 2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차세대 AI 반도체와 DTCO(설계·공정 동시 최적화) 기술 고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메타 수주 여부도 중요하지만 결국 승부를 가르는 것은 2나노 수율과 안정적인 양산 능력"이라며 "메타를 시작으로 엔트로픽, 구글 등 후속 AI 고객을 확보해야 삼성전자 파운드리 경쟁력이 본격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 1면 '가짜뉴스 꼼짝마...'서 계속

'사이버레커' 집중 규제

다만 AI가 모든 허위정보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풍자와 패러디, 사회적 맥락이 중요한 표현은 AI가 잘 못 판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가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인 만큼 플랫폼의 AI 기술과 자율 운영 역량이 이용자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생성형 AI 확산 이후 허위정보의 생산 속도가 사람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만큼 AI 기반 탐지 기술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다만 표현의 자유와 공익적 정보까지 기계가 완벽하게 구분할 수 없는 만큼 AI와 사람의 검토를 결합한 운영 체계가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도의 취지는 일반 이용자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허위정보를 생산·유통해 광고나 후원 등 경제적 이익을 얻는 이른바 '사이버레커'를 겨냥한 것이 핵심이다. 법원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 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고 직전 3개월 동안 3건 이상 게시해 수익을 얻은 경우가 주요 대상이며,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게시물의 월 평균 조회 수 10만회 이상이라는 일정 규모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SNS에 올린 글도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는 일반 이용자의 의견 표명이나 비판, 사실관계 착오 등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규제 대상 플랫폼 역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로 한정된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이 대상이다. /최나나 기자 vitna@

"외환시장 24시간 가동, 원화 글로벌 도약 출발점"

구윤철 부총리, 하나은행 딜링룸 방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은 '서울외환시장 24시간 가동'과 관련해, 이는 원화의 세계무대 도약과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 제고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6일 오전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첫날을 맞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을 찾았다. 그는 24시간 가동이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자신감과 국내 외환·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눈



은 수요 등을 반영한 개혁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비롯해 건조한 대외건전성, 역대 최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 등을 언급했다. 또 이는 단순히 거래시간을 확장하는 조치를 넘어, 외환 거래에 있어 선진시장 수준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추기 위한 핵심 인프라임을 강조했다. 그는 "원화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궁

극적으로는 우리 자본시장과 원화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수출입기업의 실시간 환리스크 대응, 국내 금융기관·중개사의 영업 확대 등 시장 참여자에게 새로운 편익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당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개장했던 외환시장은 2016년부터 폐장 시간이 오후 3시30분까지로 연장됐다. 이후 2024년 7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로 거래시간이 확대된 뒤 이날부터 24시간 거래 체제가 시작됐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국내외 투자자 및 수출입업체 등의 외환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은행·증권사, 중개회사, 수출입기업 등 모든 시장 참여자가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그간의 내부규정·업무관행 정비, 인력보강 및 사범거래 등을 언급했다.

이어 외환시장 안정과 제도 안착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향후에는 결제(자금이체)도 24시간 가능하게 하는 역외원화결제시스템(2027년 1월 본운영 계획) 등 여타의 외환시장 개혁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소부장 기반 약한 서남권... 생태계 구축이 팹 성패 가른다

AI 호남 반도체 시대

③ 협력사 동반 이전 속제

삼성·SK, 광주 군공항 팹 부지 확정 반도체 관련 기업 비중 2.6% 그쳐 협력사 적기 확보가 정상가동 좌우 현장 대응 거점 없인 수율 차질 우려 앰코 1조 투자로 후공정 기반 확대



강훈식 비서실장이 6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팹 부지가 광주 군공항 일대로 확정되면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협력사의 동반 이전이 남은 과제로 떠올랐다. 서남권의 반도체 기업 비중은 2.6%에 불과해 협력사를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팹을 정상 가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팹이 모두 이 부지에 들어선다. 250만평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평탄화가 끝나 조성 기간을 줄일 수 있으며 도심과 고속철도에 인접한 점이 선정 이

유로 제시됐다.

입지는 정해졌지만 팹을 떠날 협력사 기반은 다른 문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남권(광주·전남·전북)의 반도체 관련 기업 비중은 2.6%다. 수도권이 69.4%로 가장 많고 충청권 18%, 대경권(대구·경북) 6.1%, 동남권 3.4% 순이다.

반도체는 공정마다 다른 장비와 소재를 수백 개 협력사로부터 적기에 공급받아야 하는 장치 산업이다. 팹은 24시간 가동되고 장비 이상이 수율에 직결되기 때문에 협력사의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필수적이다. 소부장 기업들이 삼성전자 평

택캠퍼스와 SK하이닉스 이천·청주 사업장 인근에 생산거점과 서비스센터를 두고 있는 이유다.

문제는 협력사를 호남으로 데려올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협력사는 계열사와 달리 독립기업이어서 앰코기업(투자를 이끄는 핵심 대기업)이 이전을 강제할 수 없다. 정부의 권역별 계획에서도 소부장은 호남 몫이 아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첨단 패키징 클러스터는 81조원 규모로 충청권에 배치됐고 소부장 공급망 허브는 동남·대경권에 돌아갔다. 호남은 메모리 전공정 팹에 특화됐다. 결국 호남

팹 주변의 협력사 집적은 개별 기업의 판단에 맡겨진 상태다.

이에 따라 앰코기업이 직접 동반 이전 여건 조성에 나섰다. SK하이닉스는 투자 발표 직후 "앰코 기업에게 소부장 협력사 외의 적기 협업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서남권 클러스터가 협력사에도 매력적인 사업 기반이 되도록 동반 입주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보고회에 반도체 소재 기업 솔브레인 과 기반 기업 이수페타시스 등 협력사가 함께 참석한 것도 동반 이전 논의가 시작됐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소부장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공정 이상에 즉각 대응하려면 지사 형태의 거점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평택과 이천 등 기존 팹 주변에 협력사가 모여든 것도 같은 이유였다. 반면 이전 규모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주요 소부장 기업들이 이미 용인·화성 등 수도권에 연구개발(R&D) 시설과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어 호남에는 장비 설치와 사후관리(A/S) 인력 일부만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장비 제작에 두 달가량 걸리는데 비해 완성된 장비를 광주로 옮겨 설치하는 작업은 하루면 가능해 생산기까지도 옮길

필요는 없다는 시각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부지 선정부터 조성까지 9년 넘게 걸린 점에 비춰 호남에서 협력사 생태계가 자리 잡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후공정에서는 투자가 먼저 시작됐다. 세계 2위 반도체 패키징 업체 앰코테크놀로지는 광주 사업장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해 첨단 패키징 라인을 증설한다. 오는 10월 5000억원 규모의 1단계 공사에 착공하고 2035년까지 최대 1000명을 새로 고용할 계획이다.

광주 공장은 앰코 전체 생산물량의 절반을 담당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기존의 두 배인 투자액 최대 20%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앰코와 투자 유치 협약을 맺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력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는 D램을 여러 층 쌓는 구조여서 패키징 역량이 품질을 좌우한다. 팹이 광주 군공항 부지로 확정되면서 앰코 광주 공장과의 집적 효과도 커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소부장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중복상장 '원칙금지'... 물적분할 땐 3%를 주주동의 의무화

금융위·거래소, 중복상장 기준 마련 이사회, 영향평가·보호방안 선행 반대 결의 땐 거래소 심사 못 해 위반 시 최대 10억 제재·하루 정지

금융당국이 일반주주 권익을 훼손하는 비대칭적 중복상장을 막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상장사가 자회사를 증시에 올리려면 모회사 이사회가 먼저 주주영향을 평가하고 주주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은 일반주주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일반적인 중복상장에 강화된 거래소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 허용'을 위한 거래소 규정 개정안과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7일부터 의

견수럼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예고기간은 오는 14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새 제도의 핵심은 중복상장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체계를 도입한 데 있다.

적용 대상은 상장 모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비상장 자회사다. 외부감사법상 종속회사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가운데 모회사가 자본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그 손자·증손자 회사 등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기업도 포함된다.

앞으로 모회사 이사회는 자회사 상장 추진에 앞서 ▲주주영향평가 ▲주주보호방안 마련 ▲주주소통 또는 주주동의 여부 확인 ▲이사회 찬반 결의 및 자회사 동지 ▲공시 등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과정은 독립적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자회사를 해외 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보다 모회사 이사회가 먼저 중복상장의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설계했다.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잘 아는 주체가 이사회라는 판단에서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기업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이사회"라며 "모회사 이사회가 자회사 상장에 찬성하지 않으면 심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억원의 제재금과 1일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불성실공시 제재도 적용된다.

거래소는 기존 일반상장심사와 별도로 영업 독립성, 경영 독립성, 투자자 보호 등을

중심으로 중복상장 특례심사를 실시한다.

특히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주주동의를 원칙적으로 권고하고,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 상장은 주주동의를 의무화했다.

주주동의 기준은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 방식과 같은 '3%룰'을 적용한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3%까지만 인정하며, 참석 주주의 과반과 전체 의결권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물적분할이 아닌 일반 자회사는 주주동의를 받으면 주주보호 노력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동의를 받지 못하면 거래소가 개별 사인을 엄격하게 심사한다.

금융위는 일각에서 제기된 일반주주 과반동의(MoM) 방식 대신 3%룰을 채택한 배경으로 주주평등원칙과 제도 운용의 현실성을 들었다. 고 과정은 "MoM은 특정 주주에게 혜택을 주는 것과 같아 법무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도 권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3%룰이 현장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과 달리 전자투표를 실시하더라도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 요건은 유지한다. 금융위는 전자주주총회 플랫폼 구축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일반주주의 참여 여건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첨단산업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예외를 인정하지도 않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metro



구윤철 "서비스산업 경쟁력 높여 경제 대도약 뒷받침해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서비스산업기본법 제정 강조 AI 커머스·UAM 제도 기반 마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른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도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국내 서비스업 연구개발(R&D)·세제·금융 부문 등에 대한 정책 지원을 위한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

구 부총리는 6일 서울 중구 모처에서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전담반)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경제 대도약을 위해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다음 과제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AI의 단순 상품추천을 넘어, AI가 스스로 상품 비교·주문·결제 등을 대행하는 'AI 에이전틱 커머스' 시장 선점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에 AI 에이전트의 쇼핑 전 과정을 실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추진 중이다. 또 자동차·도심형 공교통(UAM) 등이 AI 자율주행과 결합하는 새 이동서비스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신산업 기반 조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전기차배터리 구독서비스,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교통 등 생활 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신산업의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율주행 배달로봇, 부동산·저작권 조각투자, 콘텐츠와 유통 결합, 가전 구독서비스 등을 예로 들었다. 신산업일수록 여러 부처의 규제가 얽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미용·숙박 등 서비스업이 규제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고 금융·R&D·수출 지원도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 탓에, 서비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산업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서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독일 "가능성 충분"... NATO 변수 관건

>> 1면 '캐나다 잠수함...'서 계속

올리버 부르크하르트 TKMS 최고경영자(CEO)도 "우리가 계약을 파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독일이 내세우는 핵심 경쟁력은 NATO 동맹국 간 상호운용성이다. 캐나다가 NATO 회원국인 만큼 독일 잠수함을 도입하면 유럽 안보 협력과 해군 전력 운용 측면에서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TKMS의 잠수함 건조 경험과 유럽 방산 공급망, NATO 체계 내 군수지원 연계 가능성도 강점으로 거론된다.

캐나다가 유럽 안보 협력 틀에 더 깊이 들어간 점도 독일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캐나다는 유럽연합(EU)의 공동 군사 조달 및 방산 투자 프로그램인

SAFE 참여를 통해 유럽 방산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독일 한 나라와의 협력에 그치지 않고 EU와 NATO 동맹 체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한국산 잠수함 선택에는 정치·외교적 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선 캐나다가 투자 및 산업협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분할 발주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의 가격·납기 경쟁력과 산업협력안을 활용하면서 독일을 통한 NATO 기반 운용 체계까지 함께 확보하는 방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캐나다가 한국의 산업협력 제안과 잠수함 경쟁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NATO 회원국인 독일과 유럽 방산 협력 구도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첨단소재’ 전면 배치... 반·배·수 고부가 영토 선점

(반도체·배터리·수소)

16 롯데케미칼



석유화학 산업의 패러다임이 격변하고 있다. 한때 캐시카우로 꼽히던 범용 석유화학 제품은 중국발 물량 공세와 글로벌 장기 불황이라는 시험대에 올랐다. 이 가운데 롯데케미칼은 전방위적인 체질 개선을 진행 중이다. 이번 대전환의 골자는 명확하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시황에 취약한 ‘기초소재’ 비중을 과감히 덜어내고 고기능성 ‘첨단소재’를 전면 배치하는 것이다. 또 외연으로는 롯데 그룹 화학군의 역량을 총동원해 반도체·배터리·수소 등 고부가 미래 영토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전경.

◆중국발 공급과잉 직격탄... 수익성·재무 부담이 중고

그간 롯데케미칼은 NCC(나프타분해시설) 기반 범용 제품을 다루는 기초소재사업부의 실적 의존도가 높아 시황 타격이 컸다. 회사는 지난 2022년부터 영업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7.1% 감소한 18조 4830억 원, 영업손실은 9431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 영업이익의 1조 5356억 원을 달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수익성 악화가 가파르다. 중국 업체들의 대규모 증설로 에틸렌 스피레드가 좁혀진 것이 치명적이었다. 업계는 중국의 증설 공세가 오는 2027년까지 이어져 하반기 공급과잉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735억 원으로 10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으나 이는 저가 나프타 투입에 따른 일시적 래깅 효과라는 분석이다. 미·이란 무력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차질을 빚자 제품 가격이 상승했고, 저가 매입 원료가 고가에 판매되며 실적을 끌어올렸다. 오히려 하반기에는 상반기 고가 원재료 투입과 증동 리스크 완화에 따른 제품이 하락이 맞물려 역래깅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크다. 재무 부담도 가중되면서 한국신용평가는 실적 회복 지연을 이유로 신용등급 전망을 ‘AA-(안정적)’에서 ‘AA-(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중 대규모 증설 공세에 매출·손익 감소 한국신용평가 등급전망 AA- 하향조정

대산공장 설비 중단 NCC생산능력 감축 여수공장 재편... 기초화학 매출도 줄어

첨단소재 중심의 고부가 스페셜티 확대 4년내 기능성 스페셜티 비중 60% 목표 화학군 먹거리 생태계 가동 ‘외연 확장’

◆비핵심 가동 중단과 자산 매각... ‘양’을 줄여 재무를 살리다

이에 따라 롯데케미칼은 국내외에서 기초소재사업부의 양적 규모를 줄이고 있다.

충남 대산공장은 물적분할 후 HD현대케미칼과 통합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다. 통합 이후 에틸렌 연산 110만 톤 규모 설비는 3년간 가동을 중단해 전체 NC C 생산능력을 약 15~20% 감축한다. 분할 직후 개별 기준 차입금 약 1조 6000억 원이 신설법인으로 이전 되면 순차입금 비율은 41.7%에서 26.9%로 개선된다. 연결 재무구조 개선 효과는 합병이 완료되는 오는 9월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남 여수에서도 사업재편이 한창이다.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DL케미칼, 여천NCC 4개사는 지난 3월 ‘여수 1호 프로젝트’ 계획서 최종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일부를 분할해 여천NCC와 합병하고,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현물출자로 참여하는 안이다. 이해관계 조율로 최종 확정은 이달로 넘어갔으나 재편이 완료되면 기초화학 매출 비중은 지난해 62%에서 대산 분할 후 56%, 여수 분할 후 45%까지 낮아질 추산이다.

해외 비핵심 자산 정리도 빠르다. 지난해 파키스탄 PTA 법인 LCPL 지분을 1276억 원에 매각한 데 이

어 말레이시아 자회사 LC타이탄 매각도 추진 중이다. LC타이탄은 가동률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된 상태다. 롯데케미칼은 지분 75.86%를 보유 중이며, 업계는 장부가(1조 5051억 원)를 밀도는 가격이라도 매각을 검토하는 것으로 본다. 올해 1분기 말 연결 차입금이 전 분기 대비 7000억 원 이상 증가한 10조 1082억 원에 달하는 만큼 저수익 자산 매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첨단소재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군살을 뺀 자리는 IT·가전·모빌리티용 고기능성 플라스틱과 복합소재를 생산하는 첨단소재사업부가 중심이 돼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로 채운다. 실제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영준 대표이사는 고기능성 화학 기업 전환과 재무 건전성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선언했고, 주우현 첨단소재사업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며 첨단소재 중심의 인사를 단행했다.

공정 효율을 위한 AI 도입도 첨단소재사업부가 주도한다. 컬러LAB은 AI 기반 컬러 매칭 시뮬레이션을 도입해 개발 효율을 높였고, 최근 디자인 특화 AI를 적용한 소재 디자인으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을 수상하며 모빌리티와 가전 등 미래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회사는 오는 2030년까지 기능성 스페셜티 소재 비중을 6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화학군 시너지로 첨단 생태계 구축... ‘질’적 도약으로 무게중심 이동

롯데케미칼 외연에서는 롯데 화학군 차원의 미래 먹거리 생태계가 가동된다. 자회사와 합작사들이 반도체, 이차전지(배터리), 수소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다.

반도체 소재는 롯데정밀화학이 한덕화학이 전담한다. 한덕화학은 지난 6월 경기 평택 포승(BIX)지구에 1300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디스플레이용 현상액(TMAH) 생산공장을 착공했다. 국내 유일 TMAH 생산 기업인 한덕화학이 생산을 맡고 롯데정밀화학이 원료를 공급하는 고부가 공급망을 안착시킨다는 전략이다.

고기능 플라스틱 분야는 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이 담당한다. 전남 울진산단에 연간 50만 톤 규모 컴파운드 생산기지를 구축 중이며 향후 피지컬 AI와 우주·항공 분야까지 대응 가능한 슈퍼 엔지니어링플라스틱(Super EP) 제품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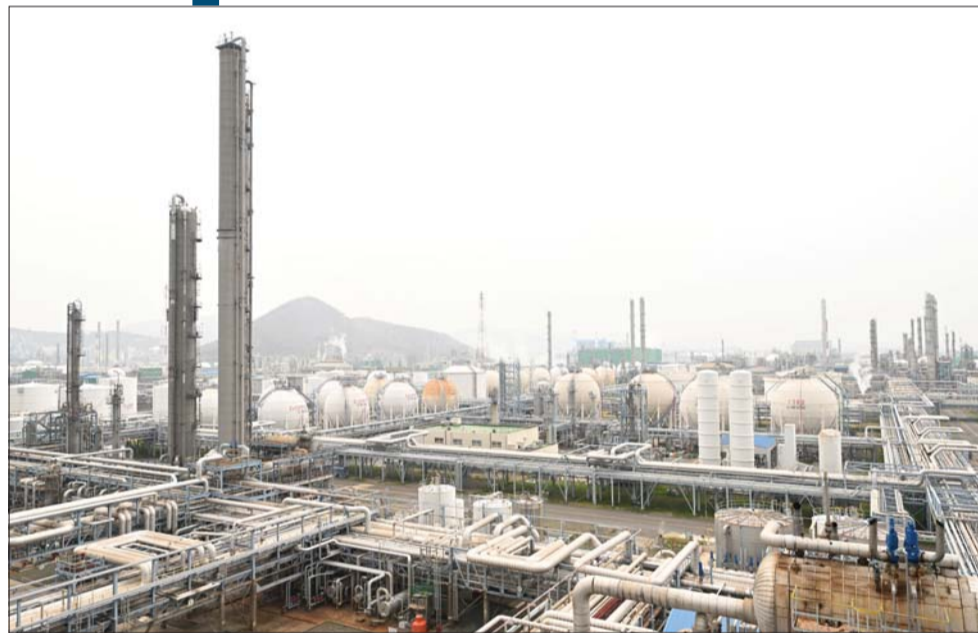
배터리 소재는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가 이끈다. 스페인 연산 3만 톤 규모 동박 공장을 내년 6월 완공 목표로 건설 중이며 북미 ESS용 동박 공급과 AI 데이터센터용 고부가 회로박 사업도 넓히고 있다. 양극박 영역에서는 롯데케미칼과 롯데알미늄의 합작법인 ‘롯데알미늄 머티리얼즈 USA’가 미국 캔자스주에 3300억 원을 투자해 연산 3만 6000 톤 규모 공장을 준공, 현재 시운전과 북미 고객사향 샘플 생산을 진행 중이다.

수소 역시 화학군의 미래 성장축이다. 부생·개질수소를 기반으로 청정수소와 암모니아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롯데정밀화학이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 암모니아 저장설비를 기반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metrosecoul.co.kr



metro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뉴스시스



한덕화학 평택공장 조감도. /롯데화학군

믿고 보는 국민작가

김은희의

빛나는

인생솔루션



KB골드라이프

토탈케어 솔루션

자산관리

전국 771개* 영업점에서 시니어 전문 상담 및 토탈케어 서비스 제공
(*KB국민은행 영업점 수, 26.3월말 기준. 광고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음)

은퇴설계

퇴직연금 등 나에게 맞는 연금상품 기반의 안정적인 은퇴자산 관리 솔루션 지원

상속·증여

유언·상속 기능 포함된 신탁상품 및 증여 플랜 상담서비스로 맞춤형 자산승계 컨설팅

돌봄·요양

주거·돌봄·요양 관련 기초 상담 등 시니어 라이프 정보 제공

※금융소비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 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과세기준 및 방법 향후 변동 가능 ※연금 외 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부과 ※수수료(사용자부담금)개인형RP: 연0%~0.45%, (기업자부담금)개인형RP: 연0.21%~0.28% ※[신탁] 운용되는 자산에 따라 보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운용보수는 운용자산별 보수 기준을 적용합니다. ※유연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류분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으므로, 관련 소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을 통한 상속 및 증여 시 관련 법에 따라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 또는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3091호(2026.06.29.~2026.12.28.)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제2026-2816-2호(2026.06.24.), 유효기간 2026.06.24.~2026.12.28.까지



더 알아보기

김민석 “정청래, 자기정치 폐해”… 당권 경쟁 첫날부터 직격

“합당·공천과정서 숙의절차등 부족
공정한 시스템 공천 복원하겠다”
정청래, 네거티브 선거전 근절 선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6일 당 대표 출마선언에서 지난 1년간 민주당을 이끌었던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자기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며 맹폭을 퍼부었다. 정 전 대표는 김 전 총리의 출마선언을 들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네거티브를하지않겠다”며 김 전 총리가 먼저 네거티브 선거전을 시작하고 있다며 간접 비판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이날 당 대표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3인방(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민주당 의원) 중에 먼저 출마 선언에 나섰다. 김 전 총리는 5·18민주화운동 단체 대표단과 청년 당원 20여명과 광주 전남동합북별시 소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5·18민주화 운동 당시 계몽군의 활기적 흔적이 남아 있는 전일빌딩 245를 찾아 당 대표 선거 출마 이유를 밝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전남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했다.

김 전 총리는 당 대표 연임 도전이 유력한 정청래 전 대표 체제 민주당을 두고 “지난 1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지지를 정당지지와 선거결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며 “지난 1년, 자기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고 지

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는 국정성공도 총선승리도 당의 단합도 어렵다. 합당 추진, 검찰개혁 논의, 공천과 선거전략 등에서 나타난 숙의 부족, 토론 부족, 절차 미비, 일관성 부족은 많은 문제를 낳았다”며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해가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이제명 대표시절의 민주적 당 운영방식을 부활시켜 숙의와 토론을 살릴 것이다. 훼손된 시스템 공천의 공정성 회복 작업도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지도부의 노력을 동지적 관점에서 치하한다. 그러나 결과책임은 정치와 정당의 기본윤리”라며 “지금 절박하고 엄격하지 않으면 우리는 총선패배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 저는 절박한 긴장감과 매서운 엄격함으로 당대표 교체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 호소드린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오전 출마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지도부가 공천권을 쥐었던 이번 호남 지역 공천이 아쉬웠다는 기자의 질문에 “이번 공천 과정에서 호남뿐 아니라, 이곳저곳 일관성과 원칙에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공천에 관한 토론과 혁신의 틀을 만들어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오후에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방문해 오전과 같은 내용으로 출마 선언했다. 김 전 총리는 선언문에서 지적인 자기정치의 폐해'의 예로 "토론과 숙의 절차 부족의 예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검찰개혁 논의, 공천, 기타 등등 이런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저는네거티브를하지않겠다. 동지의 언어만 쓰겠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또한 다른 글에서 “김대중을 존경하는 사람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재명과 함께 12·3비상계엄 내란을 이겨낸 사람들이 똘똘 뭉치자”며 “단결하면 승리한다. 저는 단결의 언어, 동지의 언어만 쓰겠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네거티브 싸움을 하지 않겠다는 정 전 대표의 입장을 두고 “출마선언에서 한 마디도 네거티브하지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네거티브는 다른 문제”라고 일축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윤리위 연 국민의힘… 친한계 징계 두고 공방

당권파 “당헌·당규에 따른 조치”
친한계 “표현의 자유 반하는 처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6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친한(친한동훈)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 논의에 돌입했다. 당권파와 친한계 사이에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내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그동안 접수된 징계 요구안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지난 6·3 지방선거에 당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출마한 부산 북구갑 선거 지원에 나선 친한계 의원들과 장 대표의 공개 사퇴를 요구한 초재선 모임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접수된 징계 요구안이다. 앞서 윤리위는 친한계 배척선 의원에게

‘당원권 1년 정지’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는 ‘탈당 권유’ 중징계 처분을 각각 내렸으나, 법원이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면서 해당 징계는 사실상 무효화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지난 1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국민의힘에서 제명됐다.

당권파 측은 이들에 대한 징계 요구가 밀려드는 만큼, 아무런 조치 없이 사태를 묵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행위 징계 문제는 당헌과 당규에 따른 원칙의 문제”라며 “정치적 유불리와 관련해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행위 징계 문제는 당이 연속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

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한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징계라는 것은 당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사유가 없으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어떤 목적을 두고 징계 절차가 시작됐고 접근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친한계에서는 당 대표 비판에 대한 징계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부당한 처사이며, 오히려 징계를 추진하는 세력에게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최형두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비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이끌어 나가야 할 정당에서 당대표를 비판했다고 그걸 징계한다면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의원이 출마했던 부산 북구갑 선거 관련해서는 “한 의원의 선거운동 방

식이 의원들의 지지를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었고, 의원들도 드러내놓고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것도 기억에 남지 않는다”며 “우리 당(국민의힘)의 상당수 당원이 당의 공천과 무관하게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찍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당선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징계를 잡내는 의원은 아무도 없다”며 “징계받아야 할 사람이 징계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징계를 위한 윤리위 소집에 대해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메트로 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윤리위를 열고 의원들을 징계하려는 국민의힘에 대해 “논리적 타당성을 얻기가 힘든 상황”이라



장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시스

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징계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대상이 되고 징계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타격”이라며 “지금의 지도부가 계속된다는 전제 하에 징계 전력이 있다면 공천을 받을 때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

“제3자” vs “야당”… 선관위 특검 추천권 놓고 여야 대치

민주당 “공정성 기준으로 설계”
국힘 “그동안 야당 배제하고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일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별검사(특검) 추천권한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특검 추천 권한을 제3자에게 쥐야 한다는 민주당과 야당에게 쥐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한병도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 특검을 두고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선관위를 수사할 특검이라면 추천 절차 역시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특검) 야당 단독 추천을 고집하는 것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번 특검에서 정치적 고려를 모두 배제하려면 제3자 추천 방식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선택하라. 특검 추천권을 정쟁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 통해 선거사무의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선관위 특검법은 이번주 내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투트랙 전략을 갖고 있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령 정비로 제도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목표 의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특검 추천에서 배제하는 것이 궤변이라고

한다. 그동안 국민의힘을 배제한 특검을 수없이 밀어붙였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가”라며 “선관위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은) 제3자 추천 특검이 현실적이고 공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그동안 민주당이 밀어붙인 특검들은 비현실적이고 불공정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가”라며 “수사범위도 이번 사태와 선관위 내부로 제한하겠다고 한다. 이 야말로 진상규명을 거부하겠다는 무책임한 몽니”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이 바라는 특검은 야당 추천, 수사 범위 무제한”이라며 “그래야 국민이 수사결과를 믿을 수 있다. 민주당이 했던 특검대로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대특검으로 버티다면 결국 국정권 몰락의 속도만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태홍 기자

정무위, 흠플러스 사태 진상규명 나선다

원구성 반대 국힘 의원들 불참

국회 정무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 차원의 흠플러스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원이자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의 흠플러스 청문회 개최 요청 발언을 듣고 “흠플러스 청문회는 야당이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야당 간사가 선임되면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구성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7월3일 서울회생법원은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을 통한 신규자금 2000억원의 조달 실패로 흠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10년간 배

당, 자산 매각 등으로 5조원이 넘는 현금을 회수한 MBK파트너스가 정작 회생을 위한 자금 조달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개인 보증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대채권자인 메리츠금융역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약탈적 금융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포괄적 금지 명령이 해제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경매가 즉시 가능해지는 초비상사태”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법원이 부여한 유예기간은 단 2주 뿐이다. 2000억원의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흠플러스는 돌이킬 수 없는 파산 및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며 “흠플러스 직영 직원이 1만2000명이요 협력업체, 입점 상인, 납품업체까지 포함하면 그 고용인원이 무려 10만명에 이르는 민생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웃음 가득할 사장님의 내일에 하나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활기 넘치는 가게를
꿈꾸는 사장님을 위해
곁에서 든든히 함께하며

하나가 사장님의 내일에
힘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 개선 및 컨설팅 제공

공공배달앱 연계 소상공인 금융 지원

·공공배달앱(먹깨비) 이용 소상공인 보증한도 지원

소상공인 자금 유동성 확보 및 지원

·영세가맹점 매출대금 조기지급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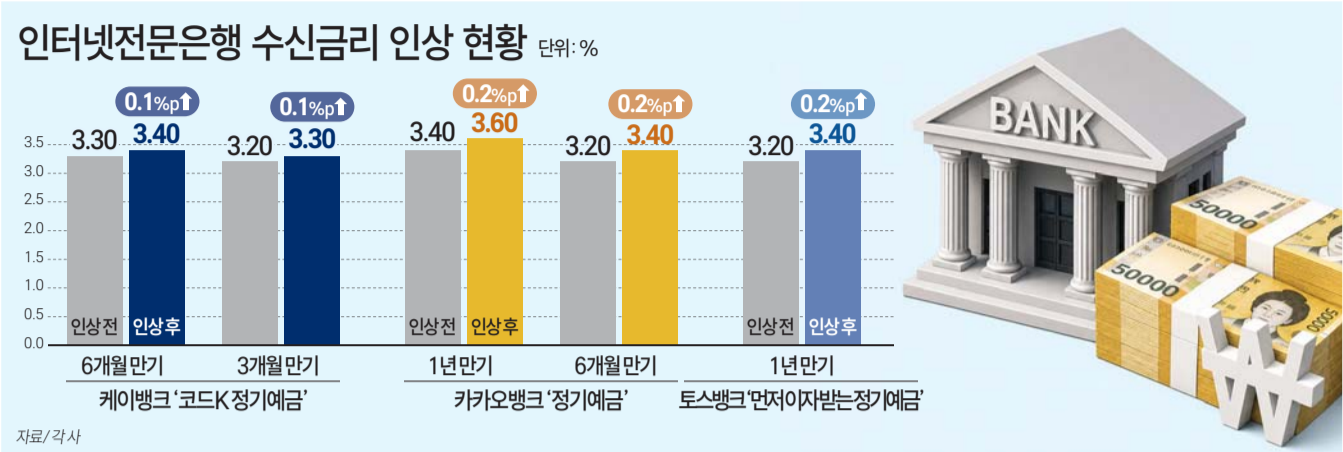
증시 변동성 확대... 투자 대기성 자금 급증 '4년만에 최대'

KB국민·신한 등 5대 시중은행
요구불예금 722조, 전월비 7.6조 ↑
정기예금 평균 최고금리 연 3.16%
은행, 수신금리 높여 자금이탈 방지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으로 한 달 새 7조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되며 잔액이 4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성 자금이 파킹통장 등 수시 입출식 예금을 중심으로 요구불예금이 늘어난 영향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달 말 요구불예금 잔액은 722조292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7조6351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 2022년 6월(당시 약 725조원)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요구불예금은 예금주가 원할 때 언제든지 조건 없이 입금과 출금을 할 수 있는 예금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과 수시 입출금식예금(MMDA) 등을 포함한다.



◆ 관망세 짙어지자 요구불예금 '쑥'

요구불예금이 증가한 배경은 국내외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 대기성 자금 유입이 자리하고 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4000선이었던 코스피는 올해 2월 5000선을 돌파한 뒤, 지난 달에는 9000선을 넘었다가 최근 8000선에 머물고 있다. 최근 국내 증시가 단기간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졌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파킹통장이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등으로 유입된 것이다.

여기에 기업과 금융회사의 여유자금도 요구불예금 증가를 뒷받침했다. 국내 증시를 이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이 해외 수주를 확대하면서 계약 선금 등을 은행에 일시 예치한 데다, 증시 호황으로 수수료와 운용수익이 늘어난 증권사들도 여유 현금을 은행에 맡긴 영향이다.

금리 영향도 컸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하반기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금리가 먼저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이 자금을 단기 예금에 묶어두려는 수요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 은행권, 예금금리 인상 경쟁

은행들은 일시적으로 유입된 대기성 자금을 장기간 확보하고 향후 증시로의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예·적금 등 수신상품 금리를 높이는 모습이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18개 은행의 36개 정기예금 상품 평균 최고금리는 연 3.16%로 집계됐다. 최고금리가 연 3% 이상인 상품은 21개로 전체의 58.3%를 차지했으며, 기본금리만 연 3%를 웃도는 상품도 13개에 달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수신금리 인

상에 적극적이다. 케이뱅크는 만기 1년 미만 '코드K 정기예금' 상품의 기본금리를 일제히 0.10%포인트(p) 인상했다. 6개월 만기 금리는 3.30%에서 3.40%로, 3개월 만기 금리는 연 3.20%에서 3.30%로 상향 조정됐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도 정기예금 등 주요 수신 상품 금리를 최대 0.20%p 인상했다. 카카오뱅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기존 연 3.40%에서 3.60%로, 6개월 만기 금리를 연 3.20%에서 3.40%로 각각 0.20%p씩 상향 조정했다.

토스뱅크는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를 최대 0.20%p 인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의 1년 만기 금리는 연 3.20%에서 3.40%로 0.20%p 올랐다.

금융권 관계자는 "증시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높이며 선제적으로 수신 기반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며 "당분간 수신 경쟁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l115@metroseoul.co.kr



저축은행, 3분기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공급 확대

14개 저축은행서 추가상품 출시
중·저신용자 자금난 해소 일한
차주별 최대 1000만원 대출 가능



ChatGPT가 생성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 관련 이미지.

주요 저축은행이 이달부터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공급 확대 드라이브를 건다. 업계에서는 서민금융 공급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건전성·수익성 부담 우려도 제기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3분기부터 다수의 저축은행이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을 본격 출시한다. 현재는 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KB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등 총 6곳만이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을 출시하는 곳이 많아질 것"이라며 "지금 여러 곳이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의 추가 상품 출시 시점을 하반기로 제시했지만

다. 금리는 연 5.9%~15.27% 사이로 형성됐다. OK저축은행이 5.9%~15.26%, SBI저축은행 7.9%~15.2%, KB저축은행 6.9%~15.2%, 신한저축은행 7.2%~15.2%, 예가람저축은행 6.8%~16.2%, 한국투자저축은행 8.18%~15.26%다. 대출 기간, 대출 최소한도 등 세부 요건은 은행별로 상이하다.

저축은행이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에 따라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중저신용자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생활안정대출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 상품이다.

여신업계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지난 달 출시를 검토했으나 전산 시스템 문제로 출시 시점이 다소 미뤄졌다.

업계에서는 서민금융 공급 기능이 확

대될 것을 기대한다. 특히, 이번 상품은 '연 소득 1배수 초과'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기존 대출 규모가 연 소득을 넘어 추가 대출이 거절됐던 중저신용자들의 급전 수요를 메울 수 있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다만, 건전성·수익성 우려도 제기된다. 중금리대출 확대로 부실이 증가하면 그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 부담과 더불어 수익성 하방 압력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으로의 머니무브, 부동산 경기 부진,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비우호적인 사업 환경도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과수원 한국신용평가수석연구원은 일부 저축은행을 두고 "올해 수익성 회복이 제한적인 것"이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도금대출과 더불어 중금리대출에서의 추가 부실 인식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신한은행 고객기반 확대 강조 '와이드앤딥' 메시지

정상형 신한은행장은 하반기 경영전략 회의에서 '고객기반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행장은 "우리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 모두 더 많은 고객들에게 다가가기 위한(Wide)이며, 이는 미래준비의 출발점이다"라며 "고객에게 지속 선택받기(Deep) 위해서는 고객이 필요로 하기 전에 더 나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6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번 경영전략 회의에서 고객기반의 수평적 확장과 고객관계의 수직적 심화를 의미하는 '와이드앤딥(Wide & Deep)'을 하반기 핵심 메시지로 제시했다. 더 많은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하는 'Wide'를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넓히고, 고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Deep'을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고객관리 및 영업지원 솔루션 고도화를 통한 핵심 고객기반 확대 ▲신한 '슈퍼SOL'과 비금융 플랫폼을 활용한 고객 접점 확장 ▲AI 에이전트(Agent) 등 은행 본업과 연계한 인공지능 전환(AI)을 통한 일하는 방식 혁신과 업무 생산성 제고를 하반기 주요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고객의 금융 편의성을 높이고 그룹 차원의 고객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신한은행은 지난 6월 17일 정식 출시한 신한금융그룹 통합 앱 '신한슈퍼SOL'을 중심으로 은행·카드·증권·보험·저축은행 등 5개 그룹사의 핵심 금융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그룹 전체로 고객기반을 확대해 차별화된 디지털 금융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올해 서울 전세가격지수 5.10% ↑... 세입자 부담 커져

전국 상승률 2.46%, 수도권 3.82%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세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세 물량 자체가 급감하면서 신규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 재계약 대비 큰 폭으로 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 2일 기준 연초 이후 2.46% 상승했다. 전년 동기(0.09%)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수도권이 3.82% 올랐고, 서울은 상승률이 5.10%에 달했다.

직방이 올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전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서울을 중심으로 신

규 계약과 재계약 간 전세보증금 격차가 확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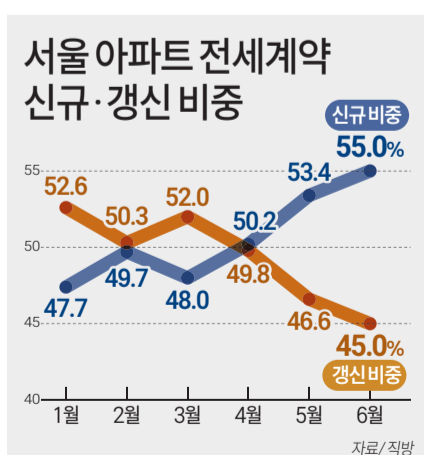
분석은 동일 단지·동일 면적에서 신규 계약과 재계약이 모두 이뤄진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전세보증금은 동일 단지·동일 면적의 거래 중앙값을 기준으로 비교했으며, 대상은 전용 59㎡형과 84㎡형이다. 월세 계약은 제외했다.

서울은 수도권 가운데 신규 계약과 재계약의 전세보증금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전용 59㎡형은 신규 계약과 재계약의 전세보증금 차이가 1월 3500만원에서 6월 775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많았다. 전용 84㎡형은 신규 계약과 재계약의 전세보증금 차이는 1월 4375만원에서 6월 8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직방 관계자는 "신규 계약은 현재 시세가 즉시 반영되는 반면 재계약은 기존 계약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며 "이와 함께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도 상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면서 신규 계약과 재계약 간 전세보증금 격차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역시 세입자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전용 59㎡형은 신규 계약과 재계약의 전세보증금 차이가 1월 2000만원에서 6월 2200만원으로, 전용 84㎡형은 같은 기간 105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벌어졌다.

전세 매물이 사라지면서 재계약 비중도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다. 서울은 신규 계약 비중이 1월 52.6%에서 6월 45.0%로 낮아진 반면 재계약 비중은 47.4%에



자료/직방

서 55.0%로 증가했다.

직방 관계자는 "최근 전세 매물 부족과 전셋값 상승으로 신규 계약에 필요한 보증금 부담이 커진 데다 이사비용과 중개보수 등 부대비용까지 고려하면서 기존 세입자의 재계약 선택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

LG, '상생결제 낙수율' 10% 이상... 협력사 경쟁력 높인다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류재철·정철동 등 170여명 참여
대금지급 개선·금융지원 등 논의



6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LG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에서 주경기 공정거래위원장, 하범중 (주)LG 경영지원부부장, LG 계열사 CEO, LG 협력사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

LG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체계를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하며 공급망 전반의 상생 생태계 강화에 나선다.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하고 금융·기술·복지 지원을 넓혀 협력사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LG는 6일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상생결제를 중심으로 2차 이하 협력사의 대금지급 조건을 개선하고 금융·복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체결식에는 주경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류재철 LG전자 사장, 정철동 LG 디스플레이 사장, 문혁수 LG이노텍 사장, 김동춘 LG화학 사장,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 이선주 LG생활건강 사장,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 등 7개 계열사 CEO가 함께했다. 아울러 하범중 (주)LG 경영지원부부장 사장, 협력사 대표와 임직원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LG 공급망에 속한 약 1300개(1·2차 협력사 기준) 협력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LG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1차 협력사 대상 현금성 결제 비율 100%를 유지하고,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상생결제로 지급한 대금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전달되는 비율을 뜻하는 '상생결제 낙수율'을 국내 기업 집단 중 최대인 1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1차 협력사들은 대기업의 상생결제를 통해 평균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상생결제 문화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2차 이하 협력사는 대금지급이 최대 100일 이상 소요되거나 대금 미지급으로 피해를 입는 등 거래 안정성의 격차가 있었다.

LG는 정부가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상생결제를 도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상생결제를 활용하는 1차 협력사에게 정기평가 시 기점 부여,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2차 이하 협력사의 원활한 대금 회수를 지원하고 있다.

협약에 참여한 LG 7개 계열사가 2025년에 상생결제를 통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대금은 약 13조5000억원 규모로, 올해도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지급될 경우 약 1조3000억원의 대금이 LG 계열사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2차 협력사에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LG는 2차 이하 협력사 지원 확대

를 위해 약 9000억원의 동반성장펀드 운영금액 중 10% 이상을 2차 이하 협력사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복리후생이 취약한 협력사를 위해 LG 계열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협력사 임직원 전용 복지몰'도 개방하기로 했다.

LG는 금전적 지원에 더해 협력사들이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 개발도 지원하고 있다. LG전자는 협력사의 DX를 돕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019년부터 250곳 이상의 협력사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 LG디스플레이는 교육·훈련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

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동 연구 개발 및 공동 특허 출원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의 기술 역량 배양을 지원하고 있다.

LG이노텍은 2023년부터 '협력사 역량 강화 훈련센터'를 통해 AI 대응 역량 강화, 생산기술 노하우 전수, 전문 인력 파견 등 현장형 실습 교육을 제공 중이며, LG화학도 기술연구원과 CS캠퍼스에서 각종 분석·시험 과정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협력회사에 기술·제품 개발에 대한 기술(인력) 지원 및 기술세미나 등을 실시하여 공동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현대차, '아틀라스' 월드컵 무대 데뷔

심판에게 경기구 전달 퍼포먼스
손흥민 등 유명선수 세리머니 선행



현대차는 6일(현지 시간) 미국 뉴저지에 위치한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16강전 하프타임에서 아틀라스가 심판에게 경기구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성공적으로 시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아틀라스가 심판에게 공을 전달하는 모습. /뉴시스

현대자동차가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로 미래 로봇기술력을 과시했다.

현대차는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컵 16강전 브라질-노르웨이 경기 하프타임에 아틀라스가 심판에게 경기구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성공적으로 시연했다고 밝혔다.

이날 아틀라스는 선수 입장 터널에서 등장해 해리 케인, 앨링 홀란, 마테우스 쿠냐, 손흥민 등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의 세리머니를 연이어 선보이며 경기장의 열기를 끌어올렸다. 이어 심판에게 경기구를 전달하며 후반전 시작을 알렸다.

이번에 선보인 아틀라스는 지난 1월 C

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6에서 처음 공개된 차세대 전동식 개발형 모델로, 실제 관중 앞에서 동작을 시연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변수가 많은 경기장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복잡한 동작을 수행하며 현대차그룹의 미래 로봇기술 활용 가능성을 입증했다.

인간의 움직임을 로봇 신체 구조에 맞게 재구성하는 리타겟팅 기술과 수천 개의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강화학습, 전신 관절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반응하는 전신 제어 기술이 결합해 자연스럽고 균형감 있는 움직임을 구현했다.

현대차 브랜드마케팅본부 지지원 부사장은 "전 세계 축구 팬이 지켜보는 월드컵 무대에서 아틀라스 퍼포먼스를 통해 미래는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자 했다"며 "앞으로도 인간 중심의 기술을 일상과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로봇기술을 통해 확장될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깎뮌치 안전관리 솔루션 고도화

열 스트레스 상황 알고리즘 개선



산업 현장에서 '스마트싱스 프로 안전관리 솔루션'과 연동된 '깎뮌치 위치'를 통해 폭염경보 알림을 확인하는 모습.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깎뮌치 위치 기반의 인공지능(AI) 안전관리 솔루션을 고도화하며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산업현장 근로자 보호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옥외 노동자 등의 온열질환 예방을 지원하는 '열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25년 9월 출시한 '스마트싱스 프로 안전관리 솔루션'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 예방을 지원하고자 현장 온도·습도 등 환경 정보와 근로자의 심박수, 활동량 등 생체 데이터를 통합해 개인 맞춤형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는 인천대학교와 산학 협력 및 삼성서울병원과 임상 검증을 완료해 솔루션 신뢰도와 예측 성능

을 향상시켰다. 먼저 인천대학교 연구팀은 개인 데이터 기반 열 스트레스 예측 및 감지 알고리즘을 고도화했다.

또 삼성서울병원 데이터사이언스 연구소는 공동 임상 검증을 진행하며 열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신체 반응과 알고리즘 예측 결과 간 일치도를 검증해 솔루션 신뢰도를 높였다. /차현정 기자

한화큐셀, 美 태양광 프로젝트 수주... 메타 전력 공급

200MW 규모... 모듈 공급·EPC 수행

소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화큐셀은 약 32만장의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고 EPC를 수행한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 미국 인디애나주 200MW(메가와트) 규모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에서 모듈 공급과 설계·조달·시공(EPC)을 함께 맡는다. 완공 후 생산 전력이 메타에 공급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북미 시장에서 대형 전력 수요 기업을 겨냥한 통합 재생에너지 솔루션 사업 확대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한화큐셀은 미국 재생에너지 개발사 켈레스트라 에너지와 인디애나주 갑슨 카운티에 조성되는 200MW 규모 태양광 발전

200MW 규모 태양광 발전소는 미국 약 3만60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발전소는 2027년 말 완공될 예정이며 켈레스트라 에너지와 메타가 체결한 전력공급계약에 따라 생산 전력은 메타에 공급된다.

한화큐셀은 이번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이퍼스케일러 등 대규모 전력 수요 기업을 대상으로 협력 기회를 넓힐 계획이

다. 단순 모듈 공급에 그치지 않고 발전소 개발에 필요한 금융, EPC, 기자재 공급을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해 북미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크리스 호드릭 한화큐셀 EPC사업부 부장은 "한화큐셀은 미국 내 제조 역량과 검증된 EPC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자 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청정 에너지 목표 달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대한항공, 200억엔 규모 사무라이본드 발행

우수한 신용도·미래 성장성 인정받아

다른 영업 시너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우수한 신용도와 미래 성장성을 인정 받았다.

대한항공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보증으로 200억엔(약 1900억원) 규모의 사무라이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사무라이본드는 외국 기업이 일본에서 발행하는 엔화 표시 채권이다.

이번 발행은 고유가와 고환율 등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투자자들은 대한항공의 여객과 화물 사업이 균형을 이루며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과 아시아항공 통합에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사무라이본드 발행은 안정적인 사업 경쟁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한 성과"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올해 1분기 별도 기준 매출 4조 5151억원, 영업이익 5169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4.1% 증가해 역대 1분기 기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47.3% 상승했다. /양성운 기자

조현민 사장 “여성기업에 필요한 건 보호망 아닌 열린 시장”

(주한진)

美 세계중소기업학회 참가
여성기업 성장 막는 시장장벽 지적
“혁신성·역량 입증할 열린시장 필요”
韓 여성 스타트업 잠재력 강조
‘사고의 리더십’으로 임파워먼트 제시

조현민(주한진) 사장이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펼쳐진 ‘ICSB 2026 월드 콩그레스(World Congress·세계중소기업학회 세계대회)’에서 역량있는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는 ‘열린 임파워먼트(Empowerment)’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사장은 여성 기업인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문제는 역량 부족이 아니라 시장 진입 과정에서의 구조적 장벽과 보이지 않는 관행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성 기업인과 스타트업이 진정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혁신성과 운영 역량을 온전히 입증할 수 있는 열린 시장”이라고 덧붙였다.

6일 세계중소기업학회(ICSB)를 이끌



조현민 한진 사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ICSB 2026 월드 콩그레스'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한진

고 있는 김기찬 의장 겸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에 따르면 조현민(Emily Cho) 사장은 지난달 30일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열린 ‘ICSB 2026 개막 세션’과 이달 1일 미국 연방의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여성 CEO의 글로벌 관점(Women CEOs Global Lens)’ 세션에 연이어 참석했다.

조 사장은 연설과 토론을 통해 여성 CEO로서 산업 현장에서 체득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사고의 리더십(Thought Leadership)’을 제시했다.

그는 기조연설에서 한진이 한국전쟁 이후 오랜 기간 미군의 물류 파트너로 협력해 온 경험을 소개하며 물류, 국방, 공급

망 산업에서 여성 리더와 여성 장병 출신 인재들이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군 복무 경험을 가진 여성들이 위기 대응 능력, 규율, 전략적 사고,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런 역량은 고도화되는 글로벌 물류 및 공급망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

조 사장은 진정한 임파워먼트(Empowerment) 의미도 재정의했다. ‘Empowerment’의 사전적 의미는 권한 이양, 권한 분산이다.

조 사장은 “진정한 임파워먼트는 외부에서 단순히 보호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유능한 혁신가들이 스스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실의 장벽과 불필요한 관행을 함께 낮추는 데서 시작된다”고 전했다.

여성 기업가정신을 단순히 복지나 지원 정책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시장 혁신, 산업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조 사장은 CEO의 관점에서 기업의

역할을 새롭게 해석했다. 기업은 단순히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직이 아니라 인재를 발굴하고 역량을 키우며,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시장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생태계 조성자라는 것이다.

조 사장은 글로벌 여성 리더들과의 패널 토론 자리에서도 한국 여성 스타트업과 여성 기업인들이 가진 잠재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여성 창업가와 중소기업들이 빠른 실행력, 높은 기술 수용성, 강한 고객 지향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자리에는 허만 아귀나스(Herman Aguinis) 미국경영학회 전 회장, 카밀 번스(Camille Burns) 세계여성기업인협회(WPO) CEO, 아이만 엘 타라비시(Ayman El Tarabishy) 조지워싱턴대 교수 등이 함께 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저출산 위기 속 기업들 출산지원 ‘통 큰 행보’

출생아 수 6.8% 증가... 민간혜택 확산
현대차·기아, 난임부터 육아까지 확대
신한은행 적금·부영 1억 장려금 눈길

저출산과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생산 활동인구 급감과 내수 소비시장 위축이 심화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에 빠진 가운데 기업들이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을 내놓으며 희망의 신호를 만들고 있다.

6일 국가정책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출생아 수는 25만 45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6100명(6.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출산율 반등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위기에 공감을 받은 민간기업들의 전례 없는 과격 지원이 맞물린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과거의 ‘보여주기식’ 단기 이벤트나 생색내기 마케팅에서 벗어나, 이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중장기적 차원의 출산·육아 혜택을 제도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산업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동참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민간 소비와 밀접한 기업들은 출산 고객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혜택 확대를 통해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산후조리원 모습. /뉴스1

현대차·기아는 직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내 복지 제도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꾸고 있다. 직원의 출산 전 단계인 난임 시술부터 장기 육아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난임 부부를 위해 횡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 원의 시술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물론, 출산 시 축하금과 다양한 복지 혜택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또 현대차·기아는 사회적 귀감이 되는 다둥이 가정이나 사연이 있는 부부들을 발굴해 차량을 무상 기증하고 있다.

타이어 유통 전문기업 타이어뱅크는

2024년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캠페인에 본격 착수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타뱅크 행복을 쏘데이’ 프로모션은 출산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첫째와 둘째 출산 시 타이어 50% 할인, 셋째 이상 출산 시에는 무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출산 장려 캠페인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추첨을 통해 최고급 세단(벤츠)과 유모차, 카시트 등 실생활에 필수적인 고가의 경품을 증정하며 저출산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경제적 보탬이 되는 특화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직원의 출산 장려금 지원 외에도, 일반 고객들을 타깃으로 한 ‘40주, 맘(Mom) 적금’을 출시해 호평을 받았다. 최고 연 5.0%의 과격적인 금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선착순으로 30만 원의 출산 축하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예비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특화 금융 상품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앞서 부영그룹은 직원이 출산할 때 신생아 1명당 ‘현금 1억 원’이라는 전례 없는 과격적인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며 학계와 산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양성은 기자 ysw@

CJ대한통운, 친환경 물류 전환 가속

배터리 물류·리사이클 신사업 확대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사진)는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미래 핵심 성장축으로 삼고 글로벌 물류 인프라를 기반으로 배터리 물류 및 리사이클 등 신성장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CJ대한통운이 6일 내놓은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사진)에서 CEO 메시지를 통해 “특히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선 수소전기 트랙터 실증사업을 통해 실제 물류 노선에서 운영 데이터를 확보하고, 운영 안정성과 경제성을 검증하며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 참여하고 친환경 물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CJ대한통운은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ESG 및 기후 관련 공시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 관리체계를 더욱 고도화했다.

향후 ESG 및 기후 관련 공시 확대에 대비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기후·환경·사회·거버넌스 전반의 데이터 신뢰성과 정보공개 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친환경 사업성과 관리, 이사회 운영 체계 고도화 등 지속가능 경영 전반의 관리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먼저 기후 관련 공시 확대에 대비해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 범위를 기존 미국에서 인도·베트남·말레이시아 등 해외 주요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기온·홍수·한파 등 기후재난에 따른 물리적 리스크와 탄소규제 강화, 저탄소 기술 도입 등 전환 리스크를 분석하고, 자산 유형과 사업 부문별 재무영향도 함께 검토했다. 분석 결과는 향후 국내외 물류 인프라 투자와 운영 전략 수립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 데이터 관리체계도 세분화했다. CJ대한통운은 정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기반으로 친환경 매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 패키징, 액화수소 운송 등 친환경 사업 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호 기자

에스원, AI 영상관제로 학교보안 시장 공략

늘봄학교 확대 속 보안수요 대응

늘봄학교 운영 확대 등으로 각급 학교들의 보안 점검이 강화되는 가운데 에스원이 AI 영상관제와 긴급 대응, 출결 관리 등을 결합한 학교 안전 솔루션을 앞세워 교육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에스원은 AI 기반 학교 특화 ‘안전 패키지’로 교육 현장 통합보안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핵심은 ‘스마트 비디오 매니지먼트 시스템(SVMS)’다. 기존 CCTV가 사고 발생 후 영상을 확인하

는 방식이었다면, SVMS는 AI 영상분석을 통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즉각 알람을 전송한다.

업계에서는 AI 영상분석 기술이 단순 시설 보안을 넘어 교육과 산업안전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CCTV가 사고 이후 확인하는 역할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AI를 활용해 이상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사전 예방형 보안’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SVMS에는 ‘침입·카상렌스·배회’ 알고

리즘이 탑재돼 외부인의 무단 침입이나 교내 배회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학교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린다. 이 밖에 폭력, 화재, 쓰러짐, 위험구역 진입 등을 탐지하는 총 6가지 특화 알고리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야간이나 주말 등 관리 인력이 부재한 시간대에도 24시간 무인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운동장·후문 주차장 등 사각지대까지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한다.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한 비상벨 서비스도 제공한다. 학생이나 교직원 비상벨을 누르면 관제센터와 즉시 연결되고, 상황 확인 후 전국 100여 개 출동 거점의 긴급 출동 요원이 현장에 출동하는 방식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중소 56% “중동분쟁 후 매출·영업익 감소”

메인비즈협, 인증기업 323곳 조사
원자재·상품 구매가 상승 64.1%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중동 분쟁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등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원자재 가격과 상품 매입가가 크게 올랐다. 2곳 중 1곳은 거래처나 공급망 불안 등을 경험했다.

이같은 내용은 메인비즈협회(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가 전국의 메인비즈 인증기업 323개사를 대상으로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해 6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6%는 중동 분쟁 이후 매출·영업이익이 감소(크게 감

소+다소 감소)했다고 답했다. ‘늘어났다’는 곳은 8.4%에 그쳤다. ‘변화 없다’는 35.6%였다. 특히 중동 분쟁,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경영 부담 수준에 대해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은 56.3%로 절반이 훌쩍 넘었다. ‘심각’은 100점 가운데 62.2점으로 매우 높았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영 위기의 핵심 요인은 공급망 차질보다 비용 증가였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요인으로 ‘원자재 및 상품 구매가격 상승’(64.1%)을 꼽았다. 이어 에너지 비용 증가, 환율 변동, 물류비 상승 순으로 나타나 공급망 차질 자체보다 원가 상승과 수익성 악화가 기업 경영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호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KT, AX 플랫폼 기업으로... AI 인프라·보안에 18조 투자

기업-AI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확장
정보보안·네트워크에 3년간 12조
AIDC·해저케이블 신사업 6조 투입

KT가 인공지능 전환(AI)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통신 사업의 본질인 '연결'을 사람과 데이터 중심에서 기업과 인공지능(AI)을 잇는 영역으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보안·네트워크부터 AI 인프라 등 신규 사업에 약 18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6일 풀만 앰배서더 서울 이스트플에 참석한 박윤영 대표는 회사의 정체성에 대해 "통신업의 본질은 '연결'에 있다"며 "AX 컴퍼니 전환과 기업-인공지능(AI)의 '연결'이다. 최근까지는 사람과 데이터가 연결 주체가 됐다면 현재는 사람과 인공지능(AI)을 연결하게 됐다"고 했다. ◆"네트워크·IT 통합 관리 필요"... 보안 등에 12조원 투입

KT는 AX를 위한 전략으로 '단단한 본질'과 '확실한 성장'을 제시했다. '안정'을 기반으로 단단한 본질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안부터 네트워크까지 3년간 약 12조원을 투입한다. 특히 정보보안·IT 핵심



박윤영 KT 대표가 6일 열린 'KT AX 플랫폼 컴퍼니' 기자간담회에서 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에 4조원의 재원을 투자한다. 지난 3개년 대비 2배 증가한 수준이다. 네트워크 분야에는 6G-위성-데이터센터 상호연결(DC I)-양자암호통신 등 미래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8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바탕으로 4대 추진 과제도 제시했다.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기반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IT와 네트워크에 분산된 보안 운영을 통합한다. 또 보안 인력을 전사 차원으로 확대하고 각계 전문가가 중립적 위치에서 자문할 수 있는 회사 주도

의 자문위원회 구성 등이다. 위성 분야에서는 KTSAT의 운영·관제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박 대표는 "토틸 운영은 KT가 가장 잘한다"며 "옛 그제 국가 차원의 저제도 위성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KT SAT이 운영과 관제에서 역할을 해야 연결 주체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했다.

◆AIDC·토론펙토리·스테이블코인... 미래 성장 동력 제시
이러 '확실한 성장'을 위한 미래 신성장

동력도 공개했다. 특히 '실수요 기반'의 AI 데이터센터(AIDC) 공급 확대를 위해 5년간 5조원을 투자해서 AI 데이터센터 25곳을 확보할 계획이다.

KT는 전국 3500개 전국 통신 국사를 AI 엣지 인프라 거점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초저지연 실시간 추론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지컬 AI를 성공으로 이끌겠다는 포부다. KT는 해저케이블 용량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 박 대표는 1조원을 선제 투자해 현재 약 38Tbps 수준의 해저케이블 용량을 향후 5년 동안 128Tbps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KT는 AIDC와 해저케이블 신사업에 총 6조원을 투입한다.

AX 핵심 공략 분야는 금융·공공·제조·의료 부문 등이다. 금융권에는 AI 컨택센터와 디지털 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에이전트 AI를 확산하고, 공공 분야에서는 소비 관련 AI 수요에 대응한다. 제조와 의료 분야에서는 피지컬 AI 실증 사업에 참여해 산업별 AI 전환 시장에 진입하겠다는 전략이다.

B2C 영역에서도 AX를 적용한다. 통신사가 요금제를 정하고 고객이 선택하는 구조를 탈피하고 고객이 주도적으로 요금

을 설계할 수 있도록 고객 이용 패턴 분석을 통해 초개인화 AX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고객 상담과 문제 해결 과정에는 AI 기반 디지털 언어 기술을 적용한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는 토큰 팩토리를 제시했다. KT는 통신망 운영에서 축적한 초정밀 과금·정산 역량을 바탕으로 전국에 분산된 1GW 규모의 AIDC와 자체 모델을 포함한 토큰 최적화 엔진을 결합할 계획이다. KT 그룹이 보유한 K뱅크, 비싸카드 등 통신·결제·인증·정산 인프라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협력도 강화한다. KT는 글로벌 AI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펄라티어부터 업스테이지·라벨리온·솔트룩스 등 국내 유망 AI 기업까지 파트너십을 넓힌다.

박윤영 KT 대표는 "인공지능 전환은 물론 AX 관련 비즈니스는 KT 혼자 할 수 없다"며 "글로벌 파트너와 국내 AI·AX 파트너들과 같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같이 생태계를 만들어 KT도 잘 되고 파트너들도 잘 되고 국내 AI 산업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민선 기자

msoj@metroseoul.co.kr metro

SKT AI 클러스터 '해인' 보안성 인정

서비스형 인프라 부문 인증 취득
국내 소버린 AI 클라우드 경쟁력 강화

SK텔레콤은 AI 데이터 센터 '해인' 클러스터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을 취득했다고 6일 밝혔다.

클러스터란 여러개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하나로 묶어 대규모 연산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해인은 블랙웰 GPU 1000개 이상을 단일 클러스터로 구성한 SK텔레콤의 클라우드 인프라다.

이번에 해인 클러스터는 서비스형 인프라(IaaS) 부문 인증을 취득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CSAP) 획득을 통해 보안성에 대한 공신력과 기술 신뢰도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망분리와 데이터 격리 등 공공 클라우드가 요구하는 보안 기준을 충족했다. 회사 측은 "유휴 상태에서 검증이 아닌



해인 클러스터 앞에서 김명국 SKT AI 팩토리 사업담당이 CSAP 인증서를 들고 기념 촬영 하고 있다. /SK텔레콤

라 정부가 주관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실제 활용 중인 상태 더 엄격한 보안 기준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해인 클러스터는 현재 정부 주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학습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 국내 소버린 AI 클라우드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전망이다. 소버린 AI 클라우드에는 AI 학습, 추론, 데이터 처리 등 AI 작업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다. /조민선 기자

코오롱베니트, 연결회계 솔루션 고도화

'베니트시그마 프로' 출시

코오롱베니트는 차세대 연결회계 솔루션 '베니트시그마 프로'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베니트시그마 프로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IFRS18) 대응과 연결 통제 강화, 공시 자동화 기능 등을 통해 기업의 연결결산 및 재무공시 업무를 지원하는 솔루션이다.

기업들은 IFRS18 도입으로 비교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고 시행 이전부터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회계기준인 IFRS18은 오는 2027년 1월 이후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을 영업·투자·재무 등 새로운 범주로 구분하고, 영업손익에 대한 기준 변경과 경영진의 성과지표에 대한 공시가 도입된다.

이번 솔루션의 핵심 기능은 'IFRS18 듀얼 레포트' 작성이다. 기존 회계 기준과 새로 적용될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각각 비교해 손익 구조와 표시 항목의 변화

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 데이터 작성부터 검증까지 전 과정에 통제 체계를 적용해 휴먼 에러를 방지하고, 변경 이력을 추적해 감사 추적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IFRS18 전환에서 발생하는 분석, 검증 부담을 크게 줄이고,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까지 확장할 수 있는 모듈을 제공해 새로운 공시 체계에 폭넓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 검증을 통과한 연결재무제표와 연결주석을 다트(DART) 전자공시용 DSD 파일로 자동 변환하는 등 산출부터 회계법인 감사 대응, 최종 공시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시스템 안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 밖에 대용량 내부거래 데이터 처리 속도 향상과 경영정보 분석 기능을 추가했다. 한편 기업지원관리(ERP)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SAP의 브랜드와 타기업의 시스템 연계를 지원하고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공식 버전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패치 개선을 제공한다. /조민선 기자

카카오프렌즈, T1 선수단 담은 협업 굿즈 11종 선보

페이지 합류 선수단 완전체

카카오프렌즈가 e스포츠 구단 T1과 두 번째 협업을 통해 신입 선수 '페이지'를 포함한 선수단 전원의 특징을 담은 굿즈 11종을 선보인다.

카카오는 카카오프렌즈가 e스포츠 구단 T1과 두 번째 협업 상품을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처음 선보인 T1 협업 굿즈는 카카오프렌즈 대표 캐릭터 춘식이 선수들의 개성을 반영해 e스포츠 팬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번 2차 협업에서는 새롭게 합류한 김수환을 비롯해 최현준, 문현준, 이상혁, 류민석 등 T1 선수단 전원의 매력을 담은



카카오프렌즈 T1 2차 협업 굿즈. /카카오프렌즈

상품을 선보인다. 출시 제품은 키링 인형과 포토카드, 피규어, 쿨링 파자마, 데스크 매트 등 총 11종이다. 키링 인형과 피규어에는 선수별 특징을 세밀하게 반영했으며, 여름철 활용도가 높은 쿨링 파자마와 데스크 매트

등 실용성과 소장 가치를 높은 제품도 포함됐다.

협업 굿즈는 카카오프렌즈 온라인 스토어와 에이블리, 카카오프렌즈 흥대 플래그십스토어를 비롯해 코엑스몰, 용산아이파크몰, 신세계 동대문점·센텀시티점·대전점 등 주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된다.

카카오는 굿즈 출시를 기념해 온라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6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에서 총 20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은 자동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5명에게 T1 선수단 전원의 친필 사인이 담긴 랜덤 피규어 플레이트를 증정한다. 당첨자는 오는 20일 발표되며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LG헬로비전, 최양락 직장 체험 예능 공개

오리지널 예능 '불 같은 후배'

LG헬로비전은 유튜브 채널 헬로라이프에서 오리지널 예능 '불 같은 후배'를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개그맨 최양락이 2021년생 신입사원 '최막내'로 변신해 다양한 기업의 직장에서 활동하는 체험형 예능이다.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기존 예능 포맷이 아닌, 조직 내부로 들어간 외부인의 시선을 통해 직장인들의 진짜 일상과 조직 문화를 페이크 다큐 형식으로 생생하게 담았다.

최양락 캐릭터 특유의 유쾌한 충청도

화법과 돌직구 리액션을 보여준다. 방송 경력 40년이 넘는 경력자가 가장 어린 신입사원이 되는 순간 발생하는 위화감을 예능적인 재미로 승화시켰다. 시청자들이 궁금해 할 만한 지점들을 신선한 시각으로 짚어내기도 한다.

MZ세대를 대표하는 20대 시수에게 새로운 직장 문화를 배우며 적응해 나가는 최막내의 좌충우돌 적응기를 통해 세대간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헬로라이프는 LG헬로비전의 공식 유튜브 채널로 현재 구독자 104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변동성 장세에 은행株 급부상... 실적·금리 모멘텀 맞물려

대표적 방어주... 상대적 강세 보여
주주환원 등 자체 투자매력 갖춰
“2분기 실적 양호할 가능성 높아”

플러코스터 장세 속에서 은행주가 피난처로 떠오르고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순환매가 나타난 가운데, 양호한 실적 전망과 주주환원 기대감, 금리 모멘텀이 맞물리며 투자심리가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들어 코스피는 5.01% 하락한 반면 KRX 은행 지수는 8.87% 상승하며 KRX 업종 지수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KRX 증권 지수도 8.60% 오르며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코스피가 7.89% 급락했던 지난 2일에도 KRX 은행 지수는 4.24% 강세를 보이며 금융 업종의 상대적 인 강세가 두드러졌다.

김은갑 키움증권 연구원은 “은행 업종에 뚜렷한 호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까지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던 반도체 업종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은행주



6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0.46% 하락한 8051.33, 코스닥 지수는 2.46% 내린 847.07에 거래를 종료했다. /뉴시스

등 일부 업종이 상대적으로 부각됐던 영향이 컸다”며 상대적 피난처 역할과 더불어 자체 투자매력도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지난달 18일 사상 처음으로 9000선에 마감했던 코스피는 다시 8000선을 위협받으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VKOSPI)는 지난달 29일 한때

97.99를 기록하며 장중 고점을 경신했으며, 이날도 86.86 수준을 유지했다. 통상적으로 20~30 수준은 안정 구간, 50을 넘어가면 ‘극단적 공포 구간’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대표적인 방어주인 은행 업종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이다. 여기에 최근 조정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된 점도 투자 매력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KRX 은행

지수는 연초부터 2월까지 27% 상승했지만 3월에는 11% 하락했고, 5월에도 8.54% 내리며 조정을 거쳤다.

은행주는 이익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밸류에이션 부담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가 유지되고 있는 데다 주주환원이 50%에 근접하면서 주요 금융지주들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이날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2분기 환율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미미 은행들의 2분기 실적은 예상대로 양호할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주가 상승으로 KB금융과 신한지주, 하나금융은 다시 직전 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짚었다.

주주환원 정책도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요인 중 하나다. 하나금융지주는 보통주 자본(CET1)비율 관리를 위해 6월 초 중단했던 자사주 매입을 7월 1일부터 재개했으며, KB금융지주는 6월 일간 1만주에 불과했던 자사주 매입 규모를 7월부터 25만주로 대폭 확대했다. 신한지주도 지난 4월에 발표한 새 기업가치제고 계획에서

자기자본이익률(ROE) 제고(+10%)를 최우선으로 주주환원을 상향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리 모멘텀도 은행주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 연구원은 “금리 인상 시점이 예상보다 늦춰지고 7월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하지만 장기금리 상승 폭이 더 커지며 장단기금리차는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7월 금융통화위원회를 기점으로 금리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홍콩 주가연계증권(ELS)과 징금 관련 불확실성 해소와 더불어 KB금융과 신한지주를 중심으로 한 2분기 실적모멘텀이 은행주 전반에 투자심리 개선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시장금리는 은행주에 우호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49%로 한주간 11bp(1bp=0.01%)포인트 상승해 4.5%에 바짝 다가섰고, 국내 10년물 국채금리는 8bp 상승하는 등 장기간 상승세가 이어졌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290억달러 규모 ADR 상장... 저평가 해소 기대도

SK하이닉스 나스닥 상장 추진

나스닥 100 등 주요지수 편입 전망
일각선 메모리반도체株 과열 경계

SK하이닉스가 오는 10일 290억달러(약 44조2000억원) 규모로 미국에터당서(ADR)를 나스닥에 상장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5일(현지시간) 이번 공모가 외국 기업의 첫 주식 매각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상장 규모는 알리바바의 2014년 미국 상장(250억달러)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코의 2019년 기업공개(IPO·256억달러)를 모두 뛰어넘는다.

상장의 목적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메모리 칩이라는 세계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의 강자로 꼽히지만, 그동안 한국 증



SK 하이닉스 본사 전경.

시에만 상장돼 있어 미국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가 쉽지 않았다. 한국 증시 개장 시간에 맞춰 거래해야 하는 불편과 환전 부담에 유동성이 극히 제한적인 비(非)스폰서 ADR(회사가 관여하지 않은 장외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투자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스닥 상장으로 SK하이닉스는 정규 장 시간대 거래는 물론 나스닥 100 등 주요 지수 편입 자격도 확보하게 돼 이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기계적 매수 수요까지 기대할 수 있다.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인베스코 QQQ의 운용자산만 4820억달러(약 735조원)에 달한다.

투자회사 시노버스 트러스트의 다니엘 모건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자본 시장인 미국 증시를 활용하면 SK하이닉스의 저평가 해소에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SK하이닉스는 12개월 선행 주가수익 비율(PER)이 6.2 배다. 경쟁사 마이크론은 지난주 주가가 14% 급락한 뒤에도 7배 수준이다. 마이크론의 PER는 지난달 22일까지 11배를 웃돌았다.

SK하이닉스는 2026년 순이익 221조원(약 1440억달러), 매출 355조원(약 2310억달러)을 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각각 415%, 265%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마이크론의 순이익은 87% 급증한 830억달러, 매출은 247% 늘어난 1300억달러로 예상된다.

다만 메모리반도체주의 가파른 랠리가 과열됐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알파벳·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투자 자금을 자체 현금 아닌 채권·주식시장 조달로 돌리는 추세는 메모리 제조사들의 실적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자산관리회사 리버웰스 어드바이저스의 에드 오그먼 최고경영자(CEO)는 “투자자들은 잠재적 투기 버블에 발을 들여놓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ADR과 서울 상장 주식 간 가격 차이를 노린 헤지펀드의 차익거래 수요도 뒤따를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조달 자금을 국내 생산공장 2곳 신설과 첨단 장비 도입에 투입할 계획이며, 경쟁사 삼성전자도 비슷한 규모의 증설에 나서고 있다. 불과 3년 전에도 수요 둔화로 메모리 가격이 무너지면서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모두 적자를 낸 적이 있어, 이번 증설 경쟁이 공급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금감원 “채권 투자, 맹신 말아야”

6가지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채권 투자에도 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이 있는 만큼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채권 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분석해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6가지 사항을 6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판매직원의 권유로 위험등급이 낮은 채권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는 내용의 분쟁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이에 금융투자 분쟁사례를 토대로 채권 투자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국채 등 낮은 위험등급의 채권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상품으로 분류되지만, 단기 전에 매도할 경우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잔존 만기가 긴 채권은 중도매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고령 퇴직자 등 원금보전이 중요한 투자자는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생활자금 등으로 채권을 만기 전에 처분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투자기간과 자금 계획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리 전망만 믿고 투자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 금리 추세는 시장 전문가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며, 수년 뒤 금리 인하를 기대해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외채권 거래 시에는 민평금리와 실제 매매수익률의 차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장외채권은 거래비용 등이 반영되면서 민평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민평금리와 실제 매매단가의 차이를 비교한 뒤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의 채권이 장내시장에서도 거래되는지 확인한 뒤 장내와 장외의 매수단가, 수수료 등을 비교해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허정윤 기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율·반대율 상승

금감원 자산운용사 현황 점검
공시수준 등 개선 과제 확인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은 모두 높아졌지만, 일부 운용사는 여전히 형식적인 공시와 미흡한 내부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6일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펀드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한 공·사모 자산운용사 285개사, 총 4만6827개 안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자산운용사의결권 행사 현황 등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율은 91.8%로 지난해(91.6%)보다 소폭 상승했고, 반대율은 6.8%에서 8.2%로 높아졌다. 전체 안건 가운데 찬성은 82.4%, 반대는 8.2%, 불행사·중립은 9.4%로 집계됐다.

다만 공시의 질적 수준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꼽혔다. 전체 점검 대상 가운데 121개사(42.4%)는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 형식적인 문구를 반복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일반 사모운용사는 내용과 성격이 다른 안건에도 동일한 행사 사유를 반복 사용하거나 공시 서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허정윤 기자

한양증권, 경영진·임직원 자사주 매입 행보

김병철 대표, 1만2100주 매입

한양증권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잇따라 자사주를 매입하며 책임경영 강화에 나섰다. 회사의 기업가치와 성장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사주 보유를 늘리며 주주 가치 제고 의지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병철 한양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사진)은 지난 3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만2100주의 자사주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주요 임원들도 자사주 매입에 동참했다. 이준규 자본시장본부장은 지난 5월 4000주를 추가 매입



했고, 박성주 CM본부장과 김태연 채권시장본부장도 지난 6월 각각 9602주와 976주를 신규 취득했다.

사내에서 회사의 자본 규모와 수익성 대비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자사주 추가 매입을 검토하는 임원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주를 매입한 한 직원은 “회사의 성장 전략과 수익 구조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미래에 함께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무보, K콘텐츠·뷰티 수출금융 확대 CJ ENM·콜마 美법인 1.25억弗 지원

중후장대 수출금융, K컬처로 확대
콘텐츠·뷰티 기업 북미 공략 지원
CJ ENM USA에 1억弗 운전자금
피프스시즌 콘텐츠 제작 확대 기대
한국콜마 美법인엔 2500만弗 투입

그동안 대형 플랜트나 선박, 자동차 등 이른바 '중후장대'형 전통 제조업 전유물로 여겨졌던 정부 차원의 중장기 수출금융이 K-콘텐츠와 K-뷰티 등 대한민국 '소프트파워' 산업으로 그 영역을 본격 확장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K-컬처를 선도하는 우리 대기업 및 중견기업 두 곳의 해외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북미 시장 영토 확장을 위한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무보의 금융 생태계 체질 개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무보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은 플랜트 등 전통적인 중후장대 산업 중심의 중장기 금융지원이 콘텐츠·뷰티 등 소프트파워 산업으로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 CJ ENM USA에 1억달러... K-콘텐츠 글로벌 공략 가속화

먼저 무보는 글로벌 IP(지식재산권) 파워하우스로 평가받는 씨제이엔엠(CJ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옥.

ENM)의 미국 현지법인인 'CJENM USA'에 1억달러(약 150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CJ ENM USA는 전 세계 대중문화의 본산인 미국 현지에서 프리미엄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작·유통하는 글로벌 스튜디오 '피프스시즌(FIFTH SEASON)'의 모회사다.

CJ ENM USA는 드라마·영화·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며 K-콘텐츠의 북미 시장 안착을 이끌어온 기업으로, 이번 대규모 자금 지원을 통해 향후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보의 든든한 금융 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OTT 플랫폼 등과의 협상력을 높이고, 대형 프로젝트

제작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 한국콜마 美 법인에 2500만달러... K-뷰티 현지 경쟁력 강화

이와 함께 무보는 글로벌 화장품 제조 자개발생산(ODM) 분야의 선두 주자인 한국콜마의 미국법인에도 약 2500만 달러(약 382억원)의 금융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금융지원은 현재 양사 간 약정된 제반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곧바로 실행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콜마 미국법인은 전 세계 화장품 시장의 중심지인 북미 대륙에서 K-뷰티 생산 기반의 글로벌 확대와 북미 사업 본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무보는 업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콜마 고유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향후 성장 가능성을 매우 높이 평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특례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지원은 현지 생산 기지 안정화 등 북미 화장품 제조 허브 구축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K-뷰티의 현지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K-컬처는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전략 산업"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농어촌공사, EU '호라이즌 유럽' 과제 선정

9개국·19개 기관 공동연구 참여

한국농어촌공사가 유럽의 초대형 연구 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과제에 선정됐다. 공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3년5개월간 9개국·19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연구에 참여하게 된다.

호라이즌 유럽은 유럽연합(EU)이 주관하는 연구 혁신 재정지원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 1월 아시아 최초로 준회원국 지격으로 가입한 뒤 기후, 에너지, 디지털경제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그리스 아테네공과대가 주관하고 네덜란드 와게닝겐대, 덴마크 등이 참여하는 다국적연합체(컨소시엄)에 속해 있다.

참여하게 될 과제는 '프로테우스' 프로젝트다. 유럽연합의 지구관측 프로그램

인 '코페르니쿠스'의 위성 관측 데이터와 현장 계측자료, 인공지능(AI) 기술을 연계해 환경정보를 스스로 해석하고 예측하는 '환경지능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한다. 공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코페르니쿠스 기반 환경지능시스템'을 농업용수 분야에 적용하고 실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성 관측 데이터와 지상 계측 데이터를 통합 활용해, 가뭄 시 농경지 물 부족과 작물 스트레스를 조기에 감지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용수공급 의사결정 모형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충북 괴산의 백마저수지를 시험장(테스트베드)으로 활용한다. 백마저수지는 공사가 운영하는 표준시험구역으로 수위계, 유속계, 토양수분계 등 물순환 전 과정을 정량화할 수 있는 정밀 계측망이 갖춰져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항만개발 영향, 해안선 12년새 308km 늘어”

해수부, 2차 해안선 변화조사 결과

항만·연안의 지속적 개발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해안선 길이가 12년 사이 총 300km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6일 총 해안선 길이 등이 포함된 '제2차 해안선 변화조사(2021~2025)'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이와 관련해 처음 공표할 당시인 2014년(2001~2013년) 기준으로 전체 해안선 길이는 1만4962.8km였다. 이번 조사 결과 해안선은 1만5270.4km로 307.6km 늘어났다.

반면 자연해안선의 비중은 줄었다. 2014년 당시 자연해안선 비중은 66.0%였으나 올해 조사에서 62.6%로 311.9km 감소했

다. 또 같은 기간 인공해안선의 비율은 34.0%에서 37.4%로 619.5km 증가했다.

인공해안선 비중의 증가는 항만·아항 개발, 방파제 설치, 연안정비사업 등 지속적인 개발과 이용에 따른 결과다. 여기에 침식 및 퇴적 등 자연적인 요인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조사원은 이번 통계가 단순히 길이의 변화를 넘어 국내 연안개발 추이를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유형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차성신 해양조사원장 직무대리는 “앞으로도 정기적이고 과학적인 정밀조사를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해안선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명륜진사갈비’ 명륜당 부당지원 심의

공정위, 계열 대부업체 저리지원 혐의
심사관, 217억 부당이익 제공 판단
최대 350억 과징금·검찰 고발 가능

숯불돼지갈비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의 운영사인 명륜당이 자신이 설립한 계열 대부업체들에 저리로 자금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 심의를 받는다. 혐의가 최종 인정될 경우 최대 350억 원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

공정위는 명륜당과 계열회사인 대부업체 14곳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해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에 따르면, 명륜당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에 정

상 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줘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륜당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4개의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했다. 이후 신입은행의 정책자금 등을 조달해 이들 대부업체에 업체당 100억 원 한도(마이너스 통장 방식)로 자금을 빌려줬고, 대부업체들은 이 자금을 다시 가맹점주들에게 대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 당시 신생 업체였던 14개 대부업체는 독자적인 자금 조달이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으나, 명륜당의 신용을 바탕으로 연 4.6% 수준의 저금리 자금을 손쉽게 확보했다. 심사관은 이들 대부업체가 정상적인 이자보다 적은 이자를 부담함으로써 총 217억 원에 달하는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심사관은 명륜당과 계열 대부업체들이 이 같은 자금 대여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 및 관련 개인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제재 수위, 특히 과징금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는 개정 전 과징금 고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개정 전 부당지원행위 고시에 따르면 '매우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지원금액의 120~160%에 달한다. 심사관이 산정한 지원 금액인 217억 원에 최대 부과기준율을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은 약 347억 원 수준에 이른다.

/세종=한용수 기자

aT, K-푸드 신시장 개척 온라인 상담회

17일까지 농식품 수출기업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K-푸드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신시장 개척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마련했다.

상담회 신청 기한은 이달 17일이며, 참가 대상은 수출시장 다변화를 희망하는 국내 농림축산식품 생산·수출기업이다.

기업이 수출 희망 국가와 품목을 신청하면, aT는 해외지사 네트워크 및 글로벌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굴한 해외 바이어와의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1:1 상담 기회와 함께 전문 통역 등을 지원한다. 해당 상담은 7월 27일부터 9월 18일까지 8주간 예정돼 있다.

온라인 수출상담회의 신청 방법 및 세부 일정 등은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모집공고와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T의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이번 온

라인 상담회는 공간의 제약을 넘어, 우리 기업이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권역의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K-푸드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4분기, 국내 최대 농식품 수출 상담회인 'K-푸드+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11월 4일부터 시흥간 열리는 행사에 각국 바이어들을 초청해 수출기업과의 상담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제주시 아라동에서 바라본 제주도 북쪽 해안선과 바다 너머의 추자도.

/뉴시스

국유지 버스주차장 사용료 1779만원 취소

중앙행심위, 국립대 처분에 제동
지자체, 대학 요청으로 시설 조성
대학, 관련 공문 받고도 장기 묵인

국립대학이 지방정부에 공익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도록 사실상 허용하고 장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뒤늦게 사용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7대학교가 국유지를 시내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한 L지방정부에 부과한 1779만 원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5년, 7대학교는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

하기 위해 대학 정문 인근 국유지에 버스 주차장을 조성해 줄 것을 L지방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L지방정부는 약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당 시설을 설치했다.

이후 L지방정부는 해당 국유지를 버스 주차장과 회차지로 사용해왔다. 이 과정에서 7대학교는 사용 허가 신청서와 사업 추진 공문, 공사착공 통보 등을 받고도 장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5년 9월, 7대학교는 L지방정부가 2020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1779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L지방정부는 "장기간 묵인한 국유지 사용에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지난해 11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2025
JIWOO
Production
Presents

Musical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Welcome to the **Hyunam-Dong Bookshop**



2025.03.01 ~ OPENRUN 루미나아트홀

원작 황보름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클레이하우스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연출 박예슬 | 작곡·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손정은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박민서

주최·제작 극단지우 기획 (주)지우컴퍼니 (주)제이엘컬처 협찬 **yes24** 사모계절 티켓문의 **NOLticket** 공연문의 02.332.4902

경북도, 금오산 중심 78km 대규모 둘레길 조성 사업 검토

걷기 여행객 급증... 사업여건 충분
구미·김천·칠곡 등 관광자원 연계
이르면 2029년 사업완료 방침



금오산 전경.

경북도가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에 걸쳐있는 금오산을 중심으로 80km 이르는 대규모 둘레길 조성을 검토하고 있어 경북 북서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금오산은 국내 도립공원 제1호이자 영남팔경에 속하는 높은 인지도에도 관광 이미지는 미흡한 편이다. 등산 코스는 가파르고 난이도가 높아 찾는 사람도 많지 않은 반면, 주변에 많은 관광자원이 있고 전국적으로 걷기여행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금오산 둘레길 조성을 위한 여건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금오산은 총면적 37㎢ 중 구미시에 55.9%, 김천시에 22.8%, 칠곡군에 21.3% 분포하고 있다.

용역 업체에 따르면 이곳에 둘레길을

만들면 대경선, 경부선, 경부고속선, 경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국도 4호선 등이 가깝고 지자체별로 주요역에서 승용차로는 20분 이내 거리여서 접근성은 양호한 것으로 봤다.

또 금오산 구역으로 구미에는 약사암, 해운사 등 유명 사찰 및 경관명소가 많고 김천에는 대성지, 오봉지 등 주민들이 즐겨찾는 수변여가공간이 발달돼 있고 하천변을 따라 캠핑장, 청소년 수

련원 등 테마시설이 있으며 칠곡군에는 금오동천(계곡피서지)을 중심으로 식음 및 숙박시설 활성화돼 있어 이를 연계하면 걷기관광 수요가 증분할 것으로 예상했다.

둘레길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진 자연경관 및 지역문화자원을 연계하고 산촌마을을 경유하면서 임도, 공원·마을길, 하천길, 보도 등 기존 노선을 최대한 활용하되 대중교통과 연

결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둘레길의 반경은 2km, 총길이는 77.9km, 1코스당 길이는 15km 내외(최대 20km 미만)로 제안했다.

걷기길의 스토리텔링 구성 요소로 구미성리역사관(유교, 인제), 채미정(길재, 충절, 학덕), 금오산저수지(걷기, 힐링) 등을 연계해 '길재에게 길을 묻다', '아은 길재 인문학 도슨트', '명상트레킹' 등을 주요 예시로 제시했다.

경북도는 연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재정확보 방안 등을 마련해 빠르면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둘레길 50% 이상이 숲길이고, 완만한 코스를 선정해 보행 약자들도 이용이 쉽도록 하며, 주민에게는 경제적 이익이 되도록 하고 주민·전문가·탐방객 등의 아이디어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향사랑기부제 전복 이벤트

전남광주특별시는 출범을 기념해 31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벤트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 주문을 완료한 기부자를 대상으로 펼쳐진다. 선착순 1000명에게 기존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에 더해 전복 800g을 추가 증정한다.

/전남광주=양수영 기자

구미시

'구미형 급행버스' 첫 도입

경북 구미시가 올해 하반기 30억원을 들여 구미형 급행버스를 첫 도입한다.

시는 급행버스 도입과 AI 기반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2개 노선에 버스 20대를 투입해 강동~강서, 산업단지~주거지를 연결, 출·퇴근 이동시간 단축이 기대된다.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도 속도를 낸다. 구미국가산업3단지 다목적복합센터 주차장(125면)은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해 내년 3월 준공 예정이다. 봉곡동 주차타워(117면)는 60억원을 들여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구미(경북)=김준한 기자

경북도, 첨단산업 거점 구축 속도

구미·포항 중심 인프라 확보 나서

경북도가 삼성전자와 삼성SDS의 구미 투자계획, 정부의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에 맞춰 구미와 포항을 중심으로 글로벌 퍼지컬AI·휴머노이드 산업 거점 조성에 속도를 낸다.

지난 3일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삼성전자 노태문 대표의 퍼지컬AI·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체계 구축, 로봇 데이터 팩토리, AI Driven Factory 구축, 신규 AI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해 삼성전자와 삼성SDS가 구미에 총 19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삼성은 제조업에 인공지능과 로봇을 접목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영남권을 글로벌 퍼지컬AI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삼성엔 정부에 '휴머노이드 로봇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건의했고, 구윤철 부총리는 구미·대구·창원·포항을 연계한 로봇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세계 최고 수준의 퍼지컬AI 산업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국내생산세액

공제 신설, 지방투자세제지원 확대, 5극 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설, 영남권 메가특구 지정,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경북도는 이번 발표를 제조 AX와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육성 전략이 국가정책으로 구체화되는 계기로 보고,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그동안 구미를 로봇 생산과 핵심 부품 공급망 거점, 포항을 연구개발과 실증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로봇융합연구원 유치, 로봇직업혁신센터와 안전로봇실 증센터 구축, 연구개발 지원, AI팩토리 보급사업, 기업 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첨단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통해 두 지역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구미는 제조기업과 부품기업을 기반으로 생산과 공급망을 담당하고, 포항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을 중심으로 원천기술 개발과 실증, 기술 사업화, 기업 협력을 맡는 기술혁신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운영 기본일정 확정

본격적인 의정활동 돌입

원 구성을 마친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올해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두차례 정례회와 3차례 임시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화기는 정례회 53일, 임시회 30일 등 모두 83일이다.

첫 임시회는 지난 1일 0시 개원해 지난 3일 폐회했고 의장단과 상임위원단, 상임위원 선출까지 초대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두번째 임시회는 13~22일 이어진다. 각 상임위원별로 통합특별시 실·국별 업무보고와 안전 처리가 예정돼 있다.

제3차 화기는 첫 정례회로 추석 연휴 직전인 9월14~21일 열린다.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초대 통합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어 4번째 화기인 10월 임시회는 7~

/전남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 지난 1일 전남 무안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첫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23일 진행된다. 시정과 교육행정 질문답변과 함께 조례·동의안·건의안 등 주요 안건 처리와 상임위 활동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연중 마지막인 제5차 화기는 제2차 정례회다. 11월2일부터 12월16일까지 45일간 이어진다. 내년 본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과 전반기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전남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포항시,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확대

유망 골목상권 육성 등 145억 투입

포항시가 민선9기 출범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금융지원과 소비촉진, 상권 특화, 전통시장 인프라 확충, 관광 연계를 통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145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로컬테마상권과 유망골목상권 육성,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구룡포는 체험형 로컬테마상권으로, 쌍사상가는 청년 중심

문화상권으로 육성하고 영일대북부시장에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희망동행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과 함께 포항사랑상품권 기능을 확대하고, 축제·관광과 연계한 소비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 AI 라이브커머스 및 브랜딩 지원, 포항형 통합배달플랫폼 구축 검토를 통해 소상공인 판로 확대에도 나설 방침이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금융지원과 소비촉진, 상권 특화, 관광 연계를 하나의 정책으로 묶어 포항형 골목경제 회복 모델을 만들겠다"며 "골목상권의 변화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부산시, 'ASEAN+3 채권시장 포럼' 연다

11월 예정... 지속가능금융 등 논의

'ASEAN+3' (동남아시아 국가연합+한·중·일) 채권시장 3대 국제포럼이 올 11월 부산에서 함께 열린다.

부산시는 올 11월2~6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일대에서 'ASEAN+3 채권시장 3대 국제포럼'을 통합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우리나라 주도로 출범한 '디지털 채권 포럼'(DBMF)과 아세안(ASEAN)+3 채권시장 포럼(ABMF), 국가 간 결제인프라 포럼(CSIF) 등의 정례회의를 한 자리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논의 결과는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된다.

올해 포럼에는 아세안+3 각국 재정당국과 중앙은행, 금융감독당국 등의 관계자 및 국제금융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채권, 국가 간 결제인프라, 지속가능금융 등을 주제로 정책세션과 전문가 논의가 진행된다.

특히 친환경·해양 분야 투자채권(그린·블루본드) 활성화와 분산원장기술(DLT) 기반 디지털자산 연계 방안 등 아시아 채권시장의 발전 방향과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부산시는 전했다.

시는 이번 국제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제금융중심지 브랜드를 높이고, 아시아 주요 국가와의 디지털·지속가능금융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부산시교육청

내달 '여름 독서교실' 운영

부산시교육청 소속 10개 도서관은 여름 방학을 맞아 내달 4~6일 초등학교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26년 여름 독서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도서관은 독서교실 담당 사서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 중심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참가 학생들은 아침독서, 도서관 이용 교육,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편지 쓰기,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독서 특강 등 도서관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참가 희망 학생은 학교장 추천을 통해 신청하거나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개별 도서관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부산 폭염 정보 알려드려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폭염 정보 알림 서비스'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7월부터 9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부산 지역 27개 도시대거점 정소에서 수집되는 실시간 기온 자료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생활권 폭염 상황을 알린다.

서비스는 연구원 누리집 내 실시간 기온 정보 팝업창과 보건환경정보 공개시스템, 16개 대기환경정보 신호등, 대기환경정보 알림톡 메시지 등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이커머스에 밀린 대형마트... 유통법 개정안에 '숨통' 트이나

대형마트 매출 비중 9.8% 추락
온라인·편의점에 장보기 수요 이동
홈플러스 회생절차로 위기감 고조

국회, 유통법 개정안 논의 본격화
새벽배송 허용 땀 물류 거점 기대
이마트·롯데마트 체험형 매장 강화



이달 28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채소류 상품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대형마트 업계가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장보기 수요가 이커머스로 빠르게 이동하는 가운데, 대형마트는 의무휴업과 심야 영업 제한 등 규제에 묶이면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국회에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업계는 반등의 계기를 기대하고 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전체 유통 매출 비중은 2018년 22.3%에서 2025년 9.8%로 급락했다. 매출 증감률도 2018년 2.3%에서 지속적으로 둔화해 2025년에는 -4.2%를 기록하며 역성장에 빠졌다.

반면 온라인 유통 매출 비중은 2020년 48.2%에서 2025년 59.0%로 확대됐고, 매년 두 자릿수 안팎의 성장률을 이어가며 오프라인 유통을 압도했다.

대형마트 부진의 배경으로는 이커머스와의 편의점의 성장에 꼽힌다. 식자재와 생

활용품 구매 수요는 온라인으로 이동했고, 즉시 필요한 상품은 근거리 상권인 편의점이 흡수하면서 대형마트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분석이다.

이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발표한 'KDI 포커스 온라인 유통의 성장과 유통시장 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소비 확대는 대형마트 중심의 소비를 근거리 상권으로 재편하는 효과를 낳았다.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신한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 1인당 온라인 지출이 1% 증가할 때 대형마트 매출은 0.264% 감소한 반면 SSM은 0.221%, 편의점은 0.324%,

기타 전문유통업은 0.356%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생필품은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즉시 필요한 상품은 집 앞 상권에서 조달하는 소비 패턴이 고착화된 결과다. 국내 3대 대형마트 가운데 하나인 홈플러스가 최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것 역시 업체 전반의 구조적 위기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업계는 의무휴업과 심야 영업 제한 등 현행 규제도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다만 최근 정부가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하면서 온·오프라인 유통 경쟁 구

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대형마트와 SSM에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과 지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안은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과 지정~오전 10시 영업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KDI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대구, 부산, 서울 서초·동대문에서는 전통시장 매출 감소 없이 대형마트 매출이 최대 7.9% 증

가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영업 제한 시간에도 상품 포장과 배송을 허용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는 심야 배송 거점으로 활용되며 경쟁력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마트들은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이커머스와 차별화가 어렵다고 보고 매장을 체험 중심 공간으로 재편하고 있다. 이마트는 '푸드마켓'을 통해 신선식품과 즉석 조리 식품을 강화하고 팝업 콘텐츠를 확대하며 식문화 경험을 앞세우고 있다. 롯데마트는 '제타플렉스'에서 4000여 종의 와인과 디지털 큐레이션 서비스를 운영하며 쇼핑과 체험을 결합한 복합 공간으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영업 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된다면 전국에 퍼져 있는 대형마트 매장이 훌륭한 도심형 물류 거점(MFC)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커머스에 밀리던 심야·새벽배송 경쟁력을 단숨에 회복해 매출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롯데백 본점 K패션관, '2030·외국인' 고객 열광

2030 방문객 비중 70% 차지
연간 매출 70% 외국인 고객

롯데백화점은 본점의 K패션 전문관 '키네틱 그라운드'가 개장 1년 만에 2030세대와 외국인 고객을 끌어들이는 핵심 공간으로 자리잡았다고 6일 밝혔다.

키네틱 그라운드는 지난해 7월 본점 9층에 문을 연 K패션 전문관으로 약 1800㎡ 규모 공간에 마벨킴, 마르디메크리디 등 K패션 브랜드 15개가 입점해 있다. 팝업 전용 공간인 '키네틱 스테이지'를 함께 운영하며 코이세이오, 더바넷, 999휴머니티 등 브랜드의 유통사 최초 매장도 선보였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키네틱 그라운드 방문객 가운데 2030세대 비중은 약 70%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본점 신규 고객의 20%가 키네틱 그라운드를 통해 유입됐으며, 방문객의 80%는 다른 상품군도 함께 구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고객 비중도 높았다. 키네틱 그라운드 연간 매출의 70%가 외국인 고객에게서 발생했으며, 지난 1년간 본점 영패션 상품군 매출은 전년 대비 130%, 외

국인 매출은 440% 증가했다. 중화권과 일본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미주·유럽 등 다양한 국가의 고객이 방문했으며, 특히 미주·유럽 고객 매출은 전년 대비 230% 늘었다.

키네틱 그라운드는 지난 1년간 총 93회의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K디자이너 브랜드와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였다. 밀로 아카이브, 아우로, 포우아이즈오리 등 패션 브랜드를 비롯해 '윤빨존맛잼', '조구민' 등 IP와 K팝 관련 콘텐츠를 소개하며 쇼핑과 체험을 결합한 공간을 운영했다.

/김서현 기자 seoh@



서울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본점 9층 '키네틱 그라운드'에서 고객들이 1주년 행사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정관장
유기농 블루베리 퓨레
물·설탕 없이 원물 통째로 담아

정관장이 건강한 식재료를 찾는 소비자 수요에 맞춰 제품군을 강화하고 있다. 정관장은 '굿베이스 유기농 블루베리 퓨레'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물과 설탕, 색소, 합성향료 등을 넣지 않은 유기농 100% 퓨레 제품이다. USDA 인증을 받은 미국산 유기농 블루베리를 원물 그대로 수입해 국내 HACCP 인증 제조시설에서 껍질과 과육, 씨까지 통째로 분쇄했다. 열처리와 불필요한 가공을 최소화해 블루베리 본연의 맛과 영양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원료는 미국 현지 농장에서 재배와 수확, 냉동까지 관리한 유기농 블루베리가운데 당도 10브릭스(Brix) 이상의 A등급만 선별했다. /김수정 수습기자

GS25, 복날 겨냥 장어·오리 간편식 선보

도시락 등 보양식 라인업 확대

GS25는 복날을 맞아 8일 장어와 오리 등 보양 식재를 활용한 도시락과 간편식, 삼각김밥을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대표 상품은 '이달의도시락 7월 복날편'이다. GS25가 매월 선보이는 '이달의 도시락' 시리즈의 7월 상품으로, 민물장어와 훈제오리를 중심으로 함박스테이크와 고추장마늘불고기, 매추리알, 들깨열무볶음, 볶음김치 등을 함께 구성했다.

출시일부터 7월 말까지는 카키오페이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페이백 행사를 진행한다.

프리미엄 간편식 '훈제오리&장어'도 함께 선보인다. 민물장어와 훈제오리, 계란말이를 비롯해 머스타드 소스와 단무지, 락고, 초생강 등을 함께 담아 한 끼 식사뿐 아니라 반찬이나 안주로도 즐길 수



GS25가 장어와 오리 등 대표 보양 식재를 활용한 도시락과 삼각김밥, 간편식 상품을 선보이며 여름철 보양식 수요 공략에 나선다. /GS리테일

있도록 구성했다. 보양 식재를 활용한 삼각김밥 2종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오리 원육과 부추볶음밥을 넣은 '더큰 오리매콤양념구이'를 출시한다. 15일에는 전복과 내장 소스를 활용한 '더큰 전복&내장볶음밥'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테라 제로, 2.2초마다 1캔씩 팔렸다

출시 100일 만에 누적 400만캔

하이트진로음료는 무알코올 맥주맛 음료 '테라 제로' (사진)가 출시 100일 만에 누적 판매량 400만캔을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국내 무알코올 음료 가운데 최단기간 판매 기록으로, 하루 평균 4만캔, 약 2.2초마다 1캔씩 판매된 수준이다.

테라 제로는 호주산 청정 맥아 농축액을 사용해 맥주 특유의 풍미와 탄산감을 구현한 무알코올 맥주맛 음료다. 알코올은 물론 칼로리와 당류, 감미료를 넣지 않은 '리얼 제로(Real Zero)' 콘셉트를 적용했다.

하이트진로는 앞서 국내 최초 무알코올 맥주맛 음료인 '하이트제로.00'을 선보인 데 이어, 테라 제로를 통해 무알코올 음료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무알콜 음료군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맥주맛 음료를 즐기려는 소비자 수요에 맞춰 판매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 축제 시음 행사와 스포츠 이벤트, SNS 프로모션 등을 통해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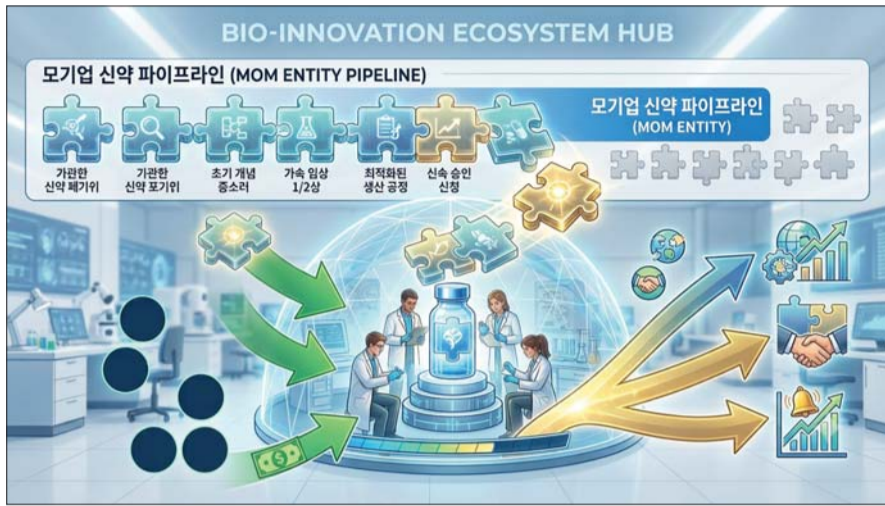
330ml와 500ml 병 제품 2종도 출시했다. 음식점 주점 등 외식·유통 채널까지 소비자 접점을 확대해 알코올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김수정 수습기자 kcrystal@

bhc
'콰삭킹' 1000만개 돌파
출시 17개월 만에 대표메뉴 안착

bhc의 치킨 메뉴 '콰삭킹'이 브랜드 대표 메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이닝 브랜드 그룹인 치킨 브랜드 bhc의 '콰삭킹'이 출시 17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000만개를 넘어섰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출시된 콰삭킹은 현재 bhc 전체 매출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 메뉴다. '뿌링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매출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콰삭킹은 감자·쌀·옥수수 크럼블을 조합한 튀김옷을 적용해 바삭한 식감을 구현했다. 특유의 바삭함이 배달 이후에도 유지돼 장마철에도 꾸준한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김수정 수습기자

임상비용 덜고 속도 높이고... K-바이오, 뉴코 전략 확산

뉴코, VC 등 투자자금 받아 설립
기술 사장되는 '셀빙' 위험 줄여
기술이전·기업가치 상승 효과



신 성장전략 '뉴코'

/제미니 생성 이미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자체 파이프라인을 무기로 '뉴코' 전략에 시동을 걸고 있다. 긴 개발 기간, 막대한 임상 비용 등 신약개발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의 일환이다.

6월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독립 리서치 기업 그로스리서치는 최근 발간한 바이오 산업 보고서를 통해 국내 바이오의 기술이전 상대방이 전통적 비파마에서 뉴코로 다변화되는 흐름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뉴코는 특정 플랫폼이나 파이프라인을 중심으로 벤처캐피털(VC) 등 투자자의 자금을 받아 설립된다. 핵심 자산에만 역량을 집중해 임상적 개념증명(PoC)을 빠르게 확보하고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를 갖는다.

뉴코의 가장 큰 강점은 '개발 속도'다. 자원을 특정 자산에 몰아주는 가운데, 설

립 초기부터 규제 전문가, 임상시험수탁기관 등과 협력해 임상 설계, 생산, 계약 등 일련의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한용희 그로스리서치 연구원은 "뉴코와의 기술이전은 임상 개발 비용을 외부화하고 병렬 개발로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도입 자산이 내부 우선순위에 밀려 방치되는 이른바 '셀빙(Shelving) 리스크'까지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파마 중심 기술이전과 차별화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독자파이프라인과 원천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은 뉴코 모델을 통해 물질 가치를 조기에 극대화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최근 성공 사례는 난치성 혈관질환 특화기업 큐라클과 항체 전문기업 맵티스가 합작한 뉴코다.

지난달 18일(현지 시간) 미국의 비상장 바이오텍 '메네토 메디신'은 9300만 달러(약 1423억원) 규모의 대규모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큐라클과

맵티스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망막질환 치료제 'MMT-205'의 전 세계 권리를 독점 라이선스 계약으로 도입했다.

이번에 조달한 대규모 자금은 MMT-205 임상시험계획(IND) 신청을 위한 비임상 연구에 투입되며 오는 2027년 글로벌 임상 1상 진입을 목표로 한다.

큐라클 측은 "메네토 메디신의 탁월한 개발 역량과 글로벌 VC들의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MMT-205 임상개발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혁신과 이프라이미 글로벌 무대로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코 설립은 신생 바이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내 대표 제약사 중에서는 유한양행이 '뉴코' 중심의 연구개발 변화에 나섰다.

유한양행은 주력 파이프라인과 지식재산권을 신규 법인에 현물 출자하고, 외부 전략적 투자자(SI)로부터 직접 투자를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본사의 대규모 임상 비용 부담을 낮추면서 뉴코가 확보한 자금으로 신약개발과 가치 창출에만 집중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실제로 유한양행은 차세대 알레르기 치료제 레시게르셉트(YH35324)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글로벌 임상 2상에 진입해 있고 향후 후속 임상과 함께 뉴코 모델을 접목해 글로벌 밸류에이션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웅그룹의 신약 연구개발 기업 한올바이오파마도 뉴코 기반 협업을 강화해 왔다.

2017년 미국 뉴코 설립 및 신약개발 전문 투자사 로이반트에 자기면역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HL161(IMVT-1401)'을 최대 5500억원 규모로 기술이전했다. 이후 로이반트는 2018년 뉴코 이뮤노반트를 설립해 해당 물질 개발 권리를 승계시켰다. 현재 이뮤노반트는 2세대 물질 'IMVT-1402'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원개발사인 한올바이오파마의 기업가치 재평가로 직결됐다는 분석이다.

국내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한된 자본이라는 속제가 풀리면 임상 가속화와 국내 기업 가치가 또 다른 전화를 맞을 것"이라고 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올리브영, 제주 전역 '오늘드림' 시대 연다

도심형 물류센터 'MFC제주' 구축
제주 지역 온라인 주문 90% 처리



올리브영 제주 지역 오늘드림 대표 이미지.

CJ올리브영이 제주 지역에서 물류 체계를 강화하며 비수도권 쇼핑 환경을 고도화하고 있다.

올리브영은 제주 애월읍에 515평 규모의 도심형 물류센터(MFC)인 'MFC제주'를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MFC제주를 통해 올리브영은 당일 배송 서비스 '오늘드림'을 제주 전역으로 확대하게 됐다.

올리브영의 오늘드림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편리한 쇼핑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다. 다만 제주 지역의 경우, 높은 수요에도 물류 시설 한계로 연간 이용 건수가 15만 건 수준에 그쳐 있었다. 또 기존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활용해 인근 권역에만 당일 배송이 가능했었다.

앞으로는 MFC제주가 제주 지역 온라인 주문의 90%를 맡는다. 오후 4시 이전 오늘드림 주문 시 별도의 도서산간비 없

이 당일 자정 전에 상품을 받아볼 수 있다. 재고 보관이 가능해지면서 취급 상품 수 역시 1만 1000종으로 다양해진다.

이와 함께 올리브영은 모바일 앱 내 제주도 맞춤형 '제주오늘드림'도 새롭게 선보인다. 제주도민들은 해당 탭에 방문해 오늘드림 가능 상품과 제주 인기 상품들을 한눈에 확인하고 쇼핑하면 된다.

올리브영은 향후 물동량 증가 추이에 따라 제주 전역에서 오늘드림 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물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취급 상품 수도 1만 600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올리브영을 찾는 제주도민들에게 만족스러운 쇼핑 경험과 당일 배송 서비스를 온전히 제공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특화 매장 개점, 관광 지원 등 다양한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인벤티지랩, mRNA-LNP 대량생산 국산화

9일 국제학회서 성과 발표

약물 전달 플랫폼 기업 인벤티지랩이 mRNA 활용 기술을 고도화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mRNA를 체내에서 안전하게 전달하는 핵심체인 LNP(지질나노입자)의 대량생산에서 발생하는 품질 저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며 연구실 수준에서 개발된 제조 기술을 상업 생산 단계까지 공정 변경 없이 그대로 확장하는 길을 열었다.

인벤티지랩은 오는 9일(현지 시간)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되는 약물전달 분야 국제학회 'CRS 2026 Annual Meeting & Exposition'에서 자체 개발한 IVL-GeneFluidic 플랫폼 기반의 'mRNA-LNP' 대량생산 기술 연구성과를 포스터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인벤티지랩은 IVL-GeneFluidic 플랫폼과 이를 이용한 제조시스템 핸디진 시리즈를 활용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상업생산 단계까지 스케일업 이슈 없이 일관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LNP(지질나노입자) 기반 '핵산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 왔다.

IVL-GeneFluidic 플랫폼은 인벤티지랩이 개발한 차세대 핵산의약품 생산 플랫폼이다

미세유체 기술을 기반으로 LNP를 정밀하게 제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연구개발 단계에서 확보한 제조 조건을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GMP) 기준을 충족하는 생산과 상업화에 응용할 수 있다. mRNA 백신뿐 아니라 차세대 핵산의약품과 다양한 RNA 기반 치료제 개발에 폭넓게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청하 기자

HLB생명과학R&D, 경북 헴프 특구 참여

미량 칸나비노이드 신약개발

HLB생명과학R&D가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국산 원료의약품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HLB생명과학R&D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조정실이 지정한 '경북 산업용 헴프(대마) 규제 자유 특구' 사업의 공동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만 다섯 번째 국책 과제 참여다.

이번 특구 사업에는 4년간 총 296억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헴프 재배, 원료 생산, 비임상 연구, 사업화 등을 아우르는 종합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또 산업용 헴프 실증 범위를 기존 칸나비디올(CBD)

에서 칸나비게롤(CBG), 칸나비크로몬(CBC), 칸나비놀(CBN) 등 '미량 칸나비노이드'까지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다.

미량 칸나비노이드는 비항정신성 성분으로 대마에 극미량 존재한다. 항염, 신경보호, 면역조절 등 다양한 생리 활성을 갖출 것으로 알려져 의료용 헴프 기반 신약 개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

아울러 HLB생명과학R&D는 미량 칸나비노이드 기반 차세대 신약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비임상 단계에서 세포 및 동물 효능평가, 약동·약력학(PK/PD) 분석, 안전성 평가 등을 수행해 임상 진입이 가능한 신약 후보물질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청하 기자

한국P&G-런드리고 다우니 향 경험 확대

한국패션지가 다양한 세탁환경에서 다우니만의 고급 향을 전달하고 있다.

한국패션지는 비대면 모바일 세탁 플랫폼 런드리고와 협업해 '다우니'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탁 서비스와 섬유유연제 브랜드를 결합한 것으로 런드리고는 자사 서비스 '생활빨래'와 '이탈빨래'에 다우니 5성급 호텔 컬렉션 섬유유연제 화이트 티를 사용한다. 런드리고 '생활빨래'와 '이탈빨래' 이용 고객은 문 앞까지 배송된 의류와 침구를 통해 편리하게 다우니 화이트 티의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향을 경험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한미약품, 국제학술지 '혁신 선도기업' 선정

'네이처 리뷰 드럭 디스커버리' 발표

한미약품이 토종 제약 기업의 연구개발(R&D) 혁신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한미약품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리뷰 드럭 디스커버리'가 발표한 아시아 등 신흥국 제약바이오 기업 분석에서 글로벌 '혁신 선도 기업' 그룹에 포함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지난 2010년부터 2025년까지 15년간 매출 5억 달러 이상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과 임상 파이프라인 구성, 매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며 혁신 역량과 연구개발 생산성을 평가한 것이다.

연구개발 투자 규모,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 비중 등을 기준으로 ▲혁신 선도 기업 ▲신흥 기업 ▲제네릭 기업으로 분류됐다. /이청하 기자

한미약품은 혁신 신약 중심의 연구개발 전략과 높은 연구개발 생산성을 입증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혁신 선도 기업 그룹에 분류된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인 매출의 약 17%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면서도 파이프라인 구축, 글로벌 기술수출 등의 성과를 냈다. 또 대사질환과 희귀질환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차세대 질환 영역에서 성장 기반을 확보했다.

해당 분석을 게재한 논문 저자는 "아시아, 특히 한국과 중국의 혁신 선도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혁신 전략을 바탕으로 향후 미국과 유럽 기업들의 강력한 경쟁자로 성장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미약품은 매년 매출의 두 자릿수 비중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또 독자 플랫폼 구축, 오픈 이노베이션 운영 등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 경쟁력을 지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100+

인공지능 (AI) 시대, 자산관리 전략도 달라져야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2026년 7월 9일(목) 오후2시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행사개요

- 행사명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 주제 인공지능(AI)시대, 자산관리 전략도 달라져야
 - 일시 2026년 7월 9일(목)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 장소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주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후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 등록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2026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 2시 30분 이후에는 행사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선착순 100명, 택1)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15	<축사>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5~14:50	송홍선 자본시장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AI와 자본시장, 기회와 위험
강연	14:50~15:20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
	15:20~15:50	최종진 한국투자증권 연금혁신본부 본부장
	15:50~16:20	정재훈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조교수
	16:20~16:50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metro · metro 경제



현대모비스, 양궁 통한 건강한 체육문화 조성

현대모비스는 전국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양궁을 정규수업 과정이나 방과 후 활동적인 학교스포츠클럽에 도입하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 충남 천안 시 남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 현대모비스와 함께하는 학교스포츠클럽 양궁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실력을 겨루고 있다. /현대모비스



LX하우스, 청주 '해오름집' 새단장 완료

LX하우스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시설인 '해오름집' 개보수를 끝내고 지난 3일 완공식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일 리모델링 완공식에서 (왼쪽부터)LX하우스 품질·제조혁신담당 노학만 이사, '해오름집' 박종선 시설장, 한국해비타트 조윤경 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X하우스



롯데마트·슈퍼, 임직원 가족과 영월 농촌 체험

롯데마트·슈퍼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강원도 영월군에서 임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롯데마트·슈퍼 임직원과 가족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쇼핑



소진공, 한국부패학회와 청렴 생태계 구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한국부패학회와 손잡고 청렴문화 확산에 나선다. 소진공은 6일 대전에 있는 공단 본부에서 한국부패학회와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사업의 공정성·신뢰를 위한 청렴 생태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진공

'박카스배' 골프대회 9일 개최

동아제약이 골프 꿈나무들의 뜨거운 경쟁을 지원하며 차세대 한국 골프 주역을 육성하고 있다.

동아제약은 오는 9일~10일 제주 골프존카운티 오라CC에서 '2026 박카스배 SBS GOLF 전국시·도학생골프팀 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대한골프협회 선수등록규정에 따라 올해 선수 등록을 마친 국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230여 명이 참가한다.

경기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2세 이하부, 15세 이하부, 18세 이하부로 구분해 1일 18홀씩 이틀간 총 36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최종 승자를 가린다. /이청하 기자 mlee236@

NCSI까지 품었다... 삼성전자, 서비스 평가 '썩쓸이'

NCSI 전자제품 AS 3년 연속 1위 올해 서비스 품질 평가 '전관왕'

삼성전자서비스가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전자제품 애프터서비스(AS) 부문 1위에 오르며 올해 국내 주요 서비스 품질 평가를 모두 석권했다.

삼성전자서비스에 따르면 6일 발표된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NCSI 조사에서 전자제품 AS 부문 1위에 선정됐다. 해당 부문이 신설된 2024년부터 3년 연속 정상에 오른 것으로 올해 조사에서는 서비스 만족도와 서비스 기대수준 등 항목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 NCSI는 실제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의 만족도를 측정해 부문별 1위 기업을 발표하는 제도다.

이번 수상으로 삼성전자서비스는 올해 국내 주요 서비스 품질 평가 1위를 모두 석권했다. 지난 2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서비스센터 부문 1



삼성전자서비스 엔지니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 /삼성전자서비스

위에 오른 데 이어 6월에는 산업정책연구원 주관하는 '국가서비스대상' 가전 AS 부문 대상을 받았다. 지난 2일에는 한국표준협회의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에서 가전·후대전화·컴퓨터 AS 3개 부문 1위를 휩쓸었다.

경쟁력의 바탕은 엔지니어 기술 역량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1986년 업계 최초로 '서비스 기술경진대회'를 도

입했고, 2019년부터는 전국에서 고객 만족도가 가장 높은 엔지니어를 'CS 달인'으로 선발해 우수 인재를 육성해 왔다. 자체 운영하는 '엔지니어 기술자격 평가' 제도는 체계적 운영을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기업자격 정부인정제' 인증을 획득했다. 이 평가를 통과해 최고 기술 역량을 인증받은 엔지니어는 'T

M(TechnicalMaster)'으로 선발되는데, 전체 엔지니어의 0.3%인 34명만이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혁신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도입한 스마트 진단 프로그램 'HASS(Home Appliance Smart Service)'는 출장 서비스 현장에서 가전제품의 상태와 고장 원인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단하는 데 활용된다.

앞서 삼성전자서비스는 스마트싱스(SmartThings) 기반 'AI 자가진단' 기능으로 고객이 제품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올해 3월에는 이른 더위에 대비해 한 달간 '에어컨 사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하며 스마트싱스 '에어컨 인공지능 진단'으로 냉매 봉입량, 모터 동작 등을 정밀 확인하는 서비스를 지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넥센타이어, 칭다오 거점으로 中 공략 한국엔컴퍼니, 그룹 ESG 보고체계 구축

중국 칭다오시 대표단 한국 방문 현지 대응 전략·협력 방안 논의

넥센타이어가 중국 현지 자동차 시장 공략에 힘을 싣는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2일 중국 칭다오시 대표단이 서울 강서구 마곡 중앙연구소 '더넥센유니버시티'를 방문해 중국 시장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칭다오시 정부 주요 지도자들의 방한 일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런강 칭다오시 시장을 비롯해 가오리핑 산동성 항구그룹 이사장 겸 총경리, 리후청 칭다오시 정부비서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칭다오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한 현지 시장 대응 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최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타이어 반덤핑 관세

압박에 나서면서 현지 생산타이어 판매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넥센타이어는 중국 칭다오 공장을 기반으로 현지 완성차 업체와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의 중국 생산법인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베이징현대를 비롯해 BYD, 립모터 등 현지 완성차 업체로 OE(신차용)타이어 공급을 확대하며 중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체용 타이어 시장에서는 중국 자동차 애프터마켓 플랫폼 투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투후 경영진을 마곡 중앙연구소로 초청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중국 우수 대리상 임직원 60여 명을 초청해 브랜드와 제품 경쟁력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양성운 기자 ysw@

중장기 실행 과제 구체화

한국엔컴퍼니가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와 한온시스템 등 주요 계열사를 아우르는 그룹 통합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보고 체계를 마련했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강화되는 흐름에 맞춰 ESG 관리 범위를 넓히고, 중장기 실행 과제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한국엔컴퍼니그룹사업형 지주회사

한국엔컴퍼니가 ESG 경영 성과와 중장기 추진 방향을 담은 '2025/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기존 ESG 팩트북을 ESG 보고서 체계로 고도화해 발간한 첫 결과물이다. 한국엔컴퍼니는 이를 통해 그룹 주요 계열사의 ESG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성 공시 환경 변화에 대응할 기반을 마련했다.

/양성운 기자

가스안전공, 김홍철 신임 기술이사 취임

석유화학진단처장 등 역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신임 기술이사로 김홍철 전 수소안전기술원장(사진)이 취임했다. 가스안전공사는 6일 충북 음성군 소재 본사에서 신임 김홍철 기술이사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 신임 기술이사의 임기는 2026년 7월 6일부터 2028년 7월 5일까지 2년이다.

김 신임 기술이사는 공사 내에서 예



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장, 울산지역본부장, 석유화학진단처장, 수소안전기술원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석유화학진단처장 재임 당시 정유 및 석유화학시설 진단 업무에 로봇과 IT 기반의 첨단 안전기술을 도입하는 등 기술 혁신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영주 스토리 담은 음악극 25일 개막

창작 융복합 공연 '아버지의 계절' 경북도 후원 경북문화재단 주최

지역 문화콘텐츠의 자생력과 예술적 가치를 동시에 갖춘 새로운 형식의 창작 융복합 공연이 울려온 관객들을 찾아온다. 지자체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스토리텔링 자원이 전문 예술인들의 손을 거쳐 고품격 문화로 재탄생하고 있다.

6일 국내 문화·예술 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후 5시 영주문화예술회관 까치홀에서 스크린 영상과 무대 위 라이브 연주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

는 클래식 음악극 '아버지의 계절'이 막을 올린다.

이번 공연은 경상북도와 경북문화재단의 '2026년 공연예술지원사업' 선정작으로, 경상북도가 후원하며 경북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칸토펠레티가 주관한다.

특히 해당 지역 예술가들이 고향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영주시 스토리텔링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첫사랑, 영주'의 스토리에 애니메이션 영상과 클래식 음악, 한국 가곡 등이 더해졌다.

/이청하 기자

MOZZARELLA
BURGER
CHEF EDITION

버거에 파인애플을

WHY?

단짠 조합으로 맛있게

HAWAII!!



By chef 삐딱한 천재

하와이안 모zzarella버거

LOTTERIA™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부실·부정 용어보다 본질에 집중해야”



기고

이용석

前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청년대변인

청년세대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온 것을 두고 청년들의 극우화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부실’과 ‘부정’ 용어의 혼재를 주목해야 한다.

청년층이 존재한다고 답한 ‘부정선거’는 선거 결과의 당락을 바꾸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선거(협의를 부정선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선거 혹은 행정적 부실선거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부정’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봐도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옳지 못함”인바, 그들에게 이번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정파적 고의를 떠나서 그 자체로 부정이라는 용어를 쓰기 충분하다.

기성세대 입장에서 ‘부정선거’ 프레임은 극우가 주장하는 선거결과 당락을 바꾸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이라는 용어로 이

해하기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두고 “역시 2030극우화가 맞구나”하는 경로의존적 생각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게 단정지어선 안 된다. 청년세대가 ‘부정선거’라는 단어에 동의했다고 해서, 이들이 음모론에 경도됐거나 극우세력의 주장에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관리의 불완전함과 상식적이지 못한 과정에 대한 ‘분노와 비판 의식’이 용어선택 과정에서 투영된 결과이다.

나아가, 책임정치인이라면 청년들이 선택한 용어 자체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본질을 읽어내야 한다. 선관위 사태에 대한 청년들의 불만을 표출할 마땅한 통로가 부족했기에, 이들은 여론조사라는 수단을 통해서라도 여전히 선관위에 분노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정치권은 청년들의 이러한 외침에 끊임없이 주목해야 한다.

잠실 시위에 자진해서 온 청년들이 반응하는 핵심 동력은 과거 극우 유투버들이 주장하던 황당무계한 조작설이 아니라, 소중한 권리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이 침해당했다는 상식적인 분노이다. 특히 공정과 절

차적 정의를 중요시하는 청년 세대가 목소리를 크게 낸 것이다.

극우 세력은 바로 이 점을 악용하고 있다. 과거의 노골적인 부정선거 음모론 대신 부실 선거를 바로잡자는 세련된 가면을 쓰고 중도층과 젊은 층의 공감을 유도한 뒤, 은근슬쩍 “이재명 정부의 선관위가 고의로 개입했다”는 ‘부정선거(조작)’ 프레임에 끼워 넣는 것이다.

99%의 합리적인 비판에 1%의 정치적 악의를 섞어 대중의 무의식을 잠식해 나가려는 매우 악질적 행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단순히 “극우 음모론에 빠졌다”고 치부하며 외면하는 것은 심각한 패착이다. 청년들의 분노를 잠식할 정당한 대신자들의 지위를 극우 세력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청년들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분노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청년들의 상식적인 요구를 풀어 안고 결과적으로 선관위 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 추진의 그림을 민주당이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선동형 하이에나 정치 세력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청년대변인(공인노무사)

완판 그 이후



기지수첩

허정운

(자본시장부)

“5일 만에 6000억원 완판 신화!”

이 문장만 보면 흡소핑 광고 문구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 상품은 웃도, 여행 패키지도, 건강식품도 아니다. 정부가 미래 전략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내놓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이야기다.

국민성장펀드는 지난 5월 출시 5일 만에 6000억원이 모두 팔렸다. 정부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확인하자 곧바로 3분기 출시를 목표로 제2차 국민성장펀드 조성에 나섰다. 흥행만 놓고 보면 성공 가도를 달리는 듯하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잘 팔린 펀드’와 ‘성공한 펀드’는

결코 동의어가 아니다. 국민성장펀드의 진짜 성패는 판매 속도가 아니라 5년 뒤 투자자들에게 어떤 성과를 돌려주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흥행에는 최근 증시 상승세와 첨단산업 투자 기대감도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정부 손실의 최대 20%를 먼저 부담하는 후순위 출자 구조와 소득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돌아켜보면 정책형 펀드의 출발은 늘 화려했다. 뉴딜펀드(문재인 정부), 녹색성장펀드(이명박 정부), 통일대박펀드(박근혜 정부)까지 이름은 달랐지만 ‘정책과 투자’를 결합한 실험이라는 점은 같았다.

물론 국민성장펀드를 과거 정책펀드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AI, 반도체, 로봇, 우주항공 등 미래 전략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고 운용사 자율 투자도 일부 허용해 과거보다 유연한 구조를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투자’보다 ‘회수’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국민성장펀드는 비상장기업과 기술특례상장 기업에도 상당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그러나 투자금을 회수할 시장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자본은 선순환하기 어렵다. 상장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투자금은 장기간 묶일 수 있고, 비상장 주식 세컨더리 시장과 M&A 시장 역시 아직 활성화했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은 몇 차례 완판을 기록했는지 아니라 투자한 기업이 성장하고, 투자금이 다시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건강한 모험자본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제는 민간 운용사의 전문성과 시장의 자율성이 제대로 작동할 제도적 기반을 다질 때다. 부디 5년 뒤 ‘성공한 국민성장펀드’라는 헤드라인을 쓰게 되길 바란다.

/zelkova@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7일 (음 5월 23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할 일은 많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60년생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마세요. 72년생 금전 거래는 금물입니다. 84년생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이 듭니다.



49년생 집안에 혼사가 있겠습니다. 61년생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 힘을 빼게 됩니다. 73년생 쓸데없는 접대는 낭비입니다. 85년생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0년생 힘들어도 꼭 이루어지니 기뻐하세요. 62년생 오랜 끈기와 인내가 결실을 보게 됩니다. 74년생 평소 하던 방식을 변경하지 마세요. 86년생 지금은 어려우나 곧 호전됩니다.



51년생 주변 상황에 낙심하지 마세요. 기회는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63년생 길 밖으로 나가심이 좋겠습니다. 75년생 부지런히 움직일 때입니다. 87년생 지금은 실패 때가 아닙니다.



52년생 이윤이 많은 거래 건이 성사됩니다. 64년생 다소 이루어질 조짐이 보입니다. 76년생 사고자 하는 곳에 반가운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88년생 상대의 마음 돌릴 길이 없습니다.



53년생 큰 꿈은 포기함이 좋을 듯 합니다. 65년생 만인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77년생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생활하세요. 89년생 주위의 알은 말을 듣고 꺾이지 마세요.



54년생 타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세요. 66년생 쇠를 끊을 정도의 힘이 생겨납니다. 78년생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90년생 하늘이 큰복을 주니 만사형통입니다.



55년생 세상의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67년생 준비된 자만이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79년생 집안이 화평하니 마음이 편합니다. 91년생 물가에 가려 거든 조금만 미루세요.



56년생 동쪽이 길방향을입니다. 68년생 혼자이라 외롭고 처량합니다. 80년생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좋습니다. 92년생 건강에 무리 없었으니 휴식이 절실합니다.



57년생 관제 구실을 조심 해야겠습니다. 69년생 내 생각과는 무관하게 세상이 변해 갑니다. 81년생 가까운 곳의 나들이는 길합니다. 93년생 애정운이 길하니 행복한 하루를 보냅니다.



58년생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얻게 됩니다. 70년생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세요. 82년생 사업의 흐름이 바뀔 시기입니다. 94년생 방황은 끝, 새로운 시작입니다.



59년생 많은 이들과 함께 어울리세요. 71년생 단체 생활을 하면 매우 길합니다. 83년생 큰 뜻을 이루니 세상의 모범이 됩니다. 95년생 맛있는 음식으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김상회의四季

지는 것이 이기는 것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속담을 들어보셨을 것이다. 굳이 싸우기보다는 양보하거나 물러서서 갈등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익이 될 수 있기에 나온 말이기도 할 것이며,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 비록 싸워서 이겼지만 한들 남는 것은 진자의 원한이기에 끝없는 복수의 부대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오나라의 부처와 월나라의 구천 외신상담이 그 좋은 예이다. 영어권 나라에서는 직역해도 역시 같은 의미인,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의미인 “Losing is equal to winning.”이라는 속담을 쓰고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같은 정서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펜이 칼을 이긴다.” (The pen wins the sword.) 라는 영국 속담 역시 비슷한 함의가 될 것이다.

반대로 이슬람권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식의 복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결국 끝없는 싸움이 모두에게 고통과 패배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며, 자국의 이슬람권과 서양 기독교문화권과의 갈등이 아직도 되풀이되는 좋은 예가 되고 있다. 특히나 노자의 도덕경을 보자면 ‘곡즉전 왕즉지 와즉영 폐즉신 소즉득 다즉후’ (曲則全 枉則直 窪則盈 弊則斷 少則得 多則惑), 이라는 구절이 보이는데, 풀이해보자면 ‘굽하면 온전하고, 구부리면 펴지며, 오목하면 채워지고, 해지면 새로워지며, 적으면 얻게 되고, 많으면 미혹된다.’라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로서 천하의 법칙으로 삼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부러지는 것보다 구부러지는 것이 낫다는 뜻이며, 강하게 주장을 고집하면 적을 많이 만들게 되니 유연하게 상황에 맞추어 나가며 적응하는 지혜를 의미한다. 우리 속담에도 모란 돌이 징 맞는다고 하지 않던가? 맞설 현령이 안 되는데 각기로 맞서며 시비를 가리다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 훈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8	6	5	2			3	
		9					
		4	9	6		5	
2	8				5	9	4
	2			3			
3	4	5			1	9	
5		8	3	4			
				7			
7		2	9	8		1	

1			3	6			4
	3		6		8	9	
	2		7	9			
9	4						
8	7	3			9	2	6
					4		3
				3	9		8
	9	6		5		4	
3		8	1				9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드의 월드퍼즐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1	8	6	9	2	7	9	2	
2	9	7	2	9	1	8	6	
9	1	2	7	8	6	2	9	
6	9	1	8	2	2	9	7	8
8	2	8	9	7	1	2	6	9
7	6	9	8	2	9	8	1	2
9	8	2	9	6	7	2	1	1
2	2	9	1	8	6	8	9	7
8	7	6	2	1	9	9	2	8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4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51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스마트폰 몰라도 전화 한통에 호출 동행택시, 어르신 활력 신고 달린다

서울시 '동행 온다 콜택시' 접근성↑
다산콜센터 전화로 편리하게 호출
9시부터 22시까지... 이용료 무료
오세훈 "어르신 이동·활력 챙길 것"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6일 서대문구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방문 어르신과 동행 온다콜택시를 호출한 뒤 배웅하고 있다. /서울시

"자녀가 도와줘야 겨우 택시를 탔는데, 이제는 전화번호를 저장해두고 바로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 편리해요."
서울시가 스마트폰 앱 사용을 어려워 겪는 고령층과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운영 중인 '동행 온다 콜택시' 접근성을 높인다. 6일부터 다산콜센터 02-120으로 전화하면 별도 앱 설치 없이 원하는 장소로 택시를 호출할 수 있다.
'동행 온다 콜택시'는 스마트폰 앱 대신 전화로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콜센터에 출발지와 도착지를 말하면 원하는 장소로 택시가 배치된다. 배차가 확정되면 차량 위치와 차량 번호, 기사 연락처가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문자로 안내된다.
기존에는 전용 콜센터 1855-0120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산콜센터 02-120으로도 바로 연결된다. 서울시는 어르신들이 별도 전화번호를 기억하거나 저장하는 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청 경로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별도 이용료는 없다. 신청은 02-120 다산콜센터와 1855-0120 온다 콜택

시 콜센터 모두에서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은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09건이던 운영 완료 건수는 올해 5월 6820건으로 증가했다. 누적 이용 건수는 약 4만4000건을 넘어섰다.
서울시는 20~40대는 60% 이상이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는 반면, 60대 이상은 80%가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상 악화나 병원·복지관 이동 등 필수 이동 상황에서 전화 호출 서비스가 어르신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이용자들은 병원 방문 등 필수 이동 상황에서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이용자는 "집 앞에서 자주 가는 병원도 몸이 아프면 이동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전화번호를 저장해두고 이제는

택시를 바로 부르고 있다"며 "너무 편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복지관 내 프로그램실과 운동실, 식당 등 어르신 이용 시설을 살폈다. 오시장은 현장에서 '동행 온다 콜택시' 배차 호출 과정을 시연하고,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과 간담회를 열어 교통 이용과 일상생활 관련 의견을 들었다.
오시장은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불편 없이 이동하고 활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교통, 건강, 여가 등 생활과 맞닿은 정책을 더 세밀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학생 마음건강 위기, 모든 교사가 읽는다

서울교육청, 마음 지킴의 날 맞아
학생 마음건강 위기 대응자료 배포

서울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식)은 오는 10일 '마음 지킴의 날'을 맞아 관내 초·중·고·각종·특수학교에 교사용 학생 마음건강 위기 발굴·대응 자료를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자료는 교사들이 학생의 마음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담임교사뿐 아니라 교과교사 등 모든 교원이 학생의 일상 변화와 위기 신호를 살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
자료에는 학생 마음건강 위기 신호와 자살 위험 징후 체크리스트, 위기 징후 발견 시 단계별 대응 절차, 학생 상황별 지

원 방법 등이 담겼다.
지원청 관계자는 "학생의 언어와 행동 변화 등 교실에서 놓치기 쉬운 위기 신호를 관찰하고, 교사가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 학생 자살자 수가 2021년 28명에서 2025년 51명으로 늘고, 자살 시도 건수도 같은 기간 3.9배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조기 발견과 대응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 '북부 마음 이음 365 마음건강 위기학생 발굴 및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 마음건강 검사를 기반으로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는 이를 확대해 교원의 학생 관찰과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수원시, 동네 지키는 '반려견 순찰대' 출범

251개 팀 위촉... 생활 위험요소 신고

수원특례시는 지난 4일 수원시기족여성회관에서 '2026년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발대식을 열고 올해 활동할 반려견 순찰대 251개 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산책하며 실종자나 주취자 등 위험에 처한 시민을 발견하거나, 펜스 파손과 배수로 막힘 등 생활 속 위험 요소를 확인해 신고하는 시민 참여형 안전 활동이다. 이와 함께 합동 순찰과 안전 캠페인에도 참여하며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탠다.

수원시는 지난 2024년 장안구에서 반려견 순찰대를 시범 운영한 뒤 지난해 활동 범위를 시 전역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사업 시행 3년째를 맞아 총 251개 팀이 순찰 활동을 펼친다.
지난해에는 221개 팀이 모두 1만7206회 순찰을 실시해 생활 주변 위험 요소 658건을 신고하는 등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올해 반려견 선발 심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가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반려견 순찰대의 역할과 활동 요령, 안전수칙 등을 공유했다.
/수원(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배재고, 광주서 사과... "교육적 회복 출발점"

(정근식 교육감)

배재고 야구부, 광주제일고 찾아
사과문 낭독, 5·18 민주묘지 방문
"인성 중요성 깨달아... 깊이 반성"

서울교육청, 학교운동부 문화 점검
정근식 "사안 엄중 인식... 책임 느껴"

5·18 민주화운동 평화 논란을 빚은 배재고 야구부 학생선수들이 광주를 찾아 고개를 숙였다. 학생선수와 감독, 교직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배재고 방문단은 6일 광주제일고에서 사과문을 낭독한 뒤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오늘은 끝이 아니라 교육적 회복의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자리에서 "상처를 입은 광주제일고 학생 선수들과 관계자, 광주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스포츠는 단순히 승패를 겨루는 경기장을 넘어 서로

를 존중하고 책임감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어야 한다"고 했다.
배재고 방문단은 앞서 광주제일고를 찾아 선수단과 야구부 감독, 교직원 명의의 사과문을 낭독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배재고 교직원과 지도자, 학생선수,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 등 86명은 이날 광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성찰과 역사교육을 진행한 뒤 광주제일고와 국립5·18민주묘지를 차례로 방문했다.
배재고 야구부 선수단은 광주제일고 방문 자리에서 낭독한 사과문을 통해 "6월 29일 목동야구장에서 펼쳐진 청룡기 야구대회에서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으로 광주제일고 선수들과 학부모, 광주 시민 분들께 큰 상처를 드렸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선수단은 "팀 모든 선수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야구를 떠나 인성과 태도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하진 깨닫고 다시 한번 배우게 됐다"고 했다. 이어 "광주제일고 선수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피해와 힘들 겪게 한 점은 같은 선수로서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다"며 "항상 마음속

깊이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배재고 야구부 감독도 별도 사과문을 통해 지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배재고는 자체 진상조사와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며, 관련 기관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묘역 참배와 관련해 "민주주의와 인권, 상생의 가치가 깃든 엄숙한 공간에서 학생들은 역사의 무게를 느끼며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준 상처를 깊이 성찰했다"며 "부끄러움을 아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배움과 성장이 시작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용기, 그리고 이를 포용과 넓은 마음으로 맞아주는 연대의 정신이 바로 학생들이 평생 가슴에 품어야 할 민주 시민의 가치"라며 "학생들이 성찰과 배움의 여정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공공체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운동부 운영 문화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용인시, 지방세 가상계좌 확대... 편의 강화

용인특례시는 시민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납부 가상계좌 운영 금융기관을 기존 5곳에서 7곳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입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는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과태료와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금융기관이 부여한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된 금융기관은 우리은행과 우체국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기존 농협,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에 더해 우리은행과 우체국까지 모두 7개 금융기관 가운데 주거래 은행을 이용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용인(경기)=김대의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7 | 해질 / 19:56

7월 7일 (화)
음력 : 5월 23일

수도권 날씨
24 ~ 30°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 연천 23/29
- 동두천 23/29
- 가평 22/29
- 파주 23/29
- 서울 24/30
- 양평 24/30
- 인천 24/29
- 수원 24/30
- 용인 24/30
- 평택 24/31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국제유가, 하락세...OPEC+ 증산 합의에 WTI 68달러선
▲트럼프, 총기 규제 빗장 푼다...정신질환 일부도 제한 완화 검토 /사진 뉴시스

▲미국 국민 10명 중 6명 "이란과 전쟁, 비용 대비 가치 없어"
▲중, 세계 첫 전자기식 캐터펄트 상륙함 '쓰촨함' 공개

▲日정부 "중국방부가 탄도미사일 발사 통지...심각 우려 전달"
▲이스라엘군, "레바논 남부 공습은 헤즈볼라 세 포 공격한 것"



이커머스에 밀린 대형마트 유통법 개정 '기대' 나



Life

바이오 업계 비용↓, 속도↑ 뉴코 전략 확산 L2



지구 숨 띄우고, 사회엔 희망을... 미래 모빌리티 '따뜻한 질주'

"기아는 앞으로도 글로벌 환경·사회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가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송호성 기아 사장)

기아는 지난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성과와 향후 전략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6'을 발간하고, '영감을 주는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움직임'이라는 비전 아래 기후위기 극복과 포용적 사회공헌을 양대 축으로 하는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전격 공개했다.

송호성 사장은 "기아는 미국 관세와 글로벌 경쟁, 중국 기업의 공격적 확장 속에서 사상 최대의 경영 실적이라는 현재의 성취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며 "전기차(EV) 대중화를 선도하고 기후 위기 극복과 투명한 거버넌스를 통해 글로벌 환경·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기아

◆과학적 기반의 기후변화 대응과 전동화 가속화

기아는 환경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후위기 대응 이정표를 세웠다. 글로벌 탄소 감축 기준인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로부터 단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공식 승인을 획득하며 탄소중립 로드맵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한 것이다.

기아는 이를 바탕으로 2024년 대비 직간접 배출(Scope 1, 2) 및 공급망 배출(Scope 3) 사용 단계의 배출량을 2035년까지 63% 감축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기아는 2026년 기존 탄소배출 감축 전략을 고도화하기 위해, SBTi 기반 Scope 1·2·3 전 영역에서 감축 경로를 보다 구체화하고, 정량적 목표 관리 체계 및 이행 점검 프로세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Scope 1·2 영역에서는 국내외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 가속화와 에너지원 다변화를 통해 실질적인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Scope 3 영역에서는 주요 원소재(철강·알루미늄·플라스틱)의 탄소 감축, 전동화 확대, 차량 경량화 및 연비 개선 등을 통해 가치사슬 전반의 탄소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기아는 탄소 배출 저감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도입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기록했다.

기아는 글로벌 RE100 가입 이후 2025년 국내외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전환율 24%를 달성하며 당초 목표 대비 9%p를 초과 달성했다. 특히 슬로바키아 사업장에 이어 2025년 중국 사업장이 신규로 RE100 달성을 완료했으며, 향후 멕시코(2026년)와 미국(2027년) 등 주요 해외 생산 거점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오토랜드 화성에 단일 사업장 기준 최대 규모인 50MW급 태양광 자체 발전 설비 구축을 확정하며 자급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가치사슬 전반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제품 전 단계에서의 순환경제 체계도 강화했다. 기아는 글로벌 환경 NGO 오션클린업과 협업해 수거한 해양 폐플라스틱을 신차 EV3의 트렁크 라이너로 재자원화하는 고도화된 자원순환을 실현했다.

전 생애주기 평가(LCA) 결과에 따르면 전용 전기차인 'EV5'는 원소재 채취부터 폐기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35.3톤CO₂ e로



기아 송호성 사장이 '2026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기아의 중장기 사업 전략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후위기 이정표 탄소중립 로드맵 세워 생산거점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전기차 모델로 탄소배출 저감 성과도

'초록여행', '하모니움', '무브투유' 등 장애인·다문화 청소년·고령층 위한 실질적 삶의 질 높은 사회공헌 펼쳐

협력사와 '동반 탄소 감축' 상생경영 이사회 독립성·투명성·건전성 강화 주주환원율 확대... 책임경영 실천해

측정되어 기존 동급 내연기관 모델(스포티지, 57.2tCO₂ e) 대비 탄소 배출량을 약 38% 저감하는 우수한 환경 성과를 증명해냈다.

◆사회적 가치 창출과 포용적 사회공헌 체계 확립

기아는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포용적 문화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사회공헌 행보는 다문화 청소년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이다. 기아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자립 교육 프로그램인 '하모니움(Harmonium)'을 새롭게 론칭하여 다문화인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 설치된 태양광 자체 발전 설비.

▲기아 '하모니움 교육 프로그램' 2기 활동 모습. /기아

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또 기아의 대표적인 장기 사회공헌 활동인 장애인 여행 지원 사업 '초록여행'은 이동 편의 제고 노력을 지속한 결과, 누적 수혜자 11만 명을 돌파하며 교통약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지방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뛰어 들었다. 기아는 지방 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식품 사막화(생필품 조달 곤란) 현상을 해소하고 고령층의 생활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 신선식품 무료 배송 서비스인 '무브투유(Move to You)' 사업을 신규 추진하며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일조하고 있다.

◆투명 경영과 협력사 상생 생태계 조성

기아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협력사와의 '동반 탄소 감축'이라는 상생 경영 모델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 현대차그룹, 중소·중견 협력업체 87개사가 참여하는 '자동차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자금과 기술력이 부족한 1차 협력사의 저탄소 설비 전환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본사의 지원을 받은 1차 협력사가 다시 2차 협력사를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반의 그린 전환(GX)을 견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거버넌스 차원에서 이사회 독립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매분기 개최해 ESG 현안을 엄격히 감독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와 보수위원회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함과 동시에 선임독립이사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건전성을 강화했다.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해 2025년 총 주주환원율(TSR)을 34.9%로 전년 대비 1.5%p 확대하고 주당 배당금을 6800원으로 확정하는 등 책임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기아 송호성 사장은 "기아는 8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여러 위기를 헤쳐 온 저력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실행과 이해관계자외의 동반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아는 이러한 ESG 경영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글로벌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월드 지수에 4년 연속 편입되었으며, 전 세계 상위 10%의 지속가능 경영 우수 기업으로서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확고히 굳혀가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박지성·이영표 세운 '축구혁신위' 출범...한국 축구 구할까 /사진 뉴스사
▲벤투 전 감독 지원설에...축구협회 "근거 없는 루머" 일축

▲KBO, 해외 아마·프로 출신 대상 2027 신인드래프트 참가 접수
▲미국 매체 "고우석, 트레이드로 미네소타행"...MLB 데뷔 임박

▲조선 기록, 만세에 전하다...실록 4대 사고본 첫 동시 공개
▲판타지 시대극 주인공 찾아오...AI 공모전 '왕과사는 나'